

2020 국별 진출전략

파키스탄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제위축 가속화	5
나. 루피화 약세 기조의 지속으로 수입시장 경색 우려	6
다. 경제회복을 위한 산업과 경제의 부가가치 극대화에 총력	7
라. 새로운 파키스탄(Naya Pakistan) 건설을 위한 개혁 계속	8
마. 자동차 산업 재편에 따른 일본 자동차 독점 구조의 완화	9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0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0
2. 시장 분석	17
가. 시장 특성	17
나. 교역	18
다. 투자	22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4
가. 교역	24
나. 투자	26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7
III. 진출전략	29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9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0
3. 한-파키스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41
4. 진출 시 유의사항	47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48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50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51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2
부 록	
對파키스탄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53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파키스탄 경제는 2019년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으로, IMF는 2018년 파키스탄 경제성장률이 13년 만의 최대인 5.8%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3.3% 수준으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0년은 IMF 구제금융 구조개혁이 이행되는 첫 해로서 각종 긴축정책 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급감할 전망이다. 다만, IMF 구조개혁 조치의 성공적 이행 여부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가. 시장 전망

2020년 경제 전망 : 2019년 대비 하락

- (경제성장률) IMF는 2019년 대비 0.5%p 하락한 2.8%로 전망
 -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누적된 대외부채 등 거시경제 불안에 기인
 - 2019년 7월, 39개월간 60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 지원 최종 결정
 - * 1980년 이후 13번째 대(對)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지원 조치
- (대외 여건) IMF 구제개혁 이행*, 중국의 투자 감소**, 카슈미르 갈등 고조, 유가 상승 우려 등으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 * IMF는 분기별로 이행성과(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완화 등)를 평가하면서 구제금융을 지원
 - ** 2018/19 회계연도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 대비 75% 감소(20억 불→5.5억 불)
- (대내 여건) 환율·물가·이자율 상승, 긴축 정책 등으로 경기가 급격히 냉각
 - *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19/20 회계연도 소비자 물가는 11~12%, 이자율은 13~14%로 전망

2020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

- IMF 구조개혁 조치의 성공적 이행 여부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가능
 - * IMF와 World Bank는 과거 정부는 단기적인 성장에 치중했으나, 현 정부는 '어렵지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IMF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병행하고 있다고 평가
- 파키스탄 정부 및 중앙은행도 2019/20 회계연도에 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완화되고, 환율이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 등 경제 안정화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
인구	백만 명	195.3	199.4	203.6	207.9	212.2	216.6	220.9
명목 GDP	십억 달러	244	271	278	304	314	282	266
1인당 명목GDP	달러	1,249	1,359	1,365	1,462	1,479	1,315	1,204
실질성장률	%	4.7	4.7	5.5	5.6	5.8	3.3주1)	2.8 ^{주2)}
실업률	%	6.0	5.9	6.0	6.0	6.1	6.1	6.2 ^{주3)}
소비자물가상승률	%	8.6	4.5	2.9	4.2	3.9	7.0	11~12% ^{주4)}
재정수지(GDP대비)	%	-4.9	-5.2	-4.3	-3.9	-6.5	-8.9	-7.9 ^{주5)}
총수출	백만 달러	25,075	24,090	21,972	22,003	24,772	24,224	27,165
(對韓 수출)	백만 달러	402	284	283	317	379	310주6)	N/A
총수입	백만 달러	41,630	41,357	41,225	46,682	56,592	52,388	47,184
(對韓 수입)	백만 달러	770	790	829	1,006	1,018	563주7)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6,555	-17,267	-20,253	-24,679	-31,820	-28,164	-20,019
경상수지(GDP대비)	백만 달러	-1.3	-1.0	-1.7	-4.1	-5.8	-3.7	-3.0 ^{주8)}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01.7	104.7	104.8	105.1	121.82	151.42	172.53 ^{주9)}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6.9	9.8	23	27.4	30.9	17.3	N/A

참고1) 2018/19 회계연도는 추정치(일부 확정치), 2019/2020 회계연도는 전망치

참고2) 인구와 명목 GDP는 EIU 보고서 참조, 1인당 명목 GDP = 명목 GDP÷인구

참고3) 2019/20 회계연도 총수출, 총수입, 무역수지 예측치는 EIU 보고서 참조

주1 : 파키스탄 중앙은행 및 재무부의 2018/19 회계연도 잠정치

주2 : 2020년도 말 기준 IMF 전망치

주3 : 2020년도 말 기준 IMF 전망치

주4 : 2019/20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 중앙은행 전망치

주5 : 2019/20 회계연도 기준 EIU 전망치

주6 : 2018년도 말 기준 무역협회 통계치

주7 : 2018년도 말 기준 무역협회 통계치

주8 : 2019/20 회계연도 기준 EIU 전망치

주9 : 파키스탄 중앙은행 월별 환율평균치 활용

주10 : 수출입 통계는 파키스탄 중앙은행에서 집계한 FOB 기준

자료 : IMF, Board of Investment, World Bank, ADB,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State Bank of Pakistan, Ministry of Finance(Economic Survey), EIU Country Report, 한국무역협회

-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제위축 가속화
- 루피화 약세 기조의 지속으로 수입시장 경색 우려
- 경제회복을 위한 산업과 경제의 부가가치 극대화에 총력
- 새로운 파키스탄(New Pakistan) 건설을 위한 개혁조치 계속
- 자동차 산업 재편에 따른 일본 자동차 독점 구조의 완화

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제위축 가속화

IMF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위한 긴축정책 불가피

- 2019년 7월, 6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금융 확정
 - 2018년 8월 신정부 수립 직후부터 약 10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1980년 이후 13번째에 해당하는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
 - 재정적자 완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시장자율변동환율제 도입,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등을 골자로 39개월 간 총 60억 달러 지원
 - * 보조금 축소, 공기업 경영개선, 돈세탁 방지 노력 강화, 테러자금 조성 억제, 친기업 환경 조성, 자유무역 강화, 경상수지 적자 감소 등의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노력 이행
- 2020년에는 IMF의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
 - IMF는 분기별로 파키스탄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제금융을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
 - * 2019년 7월에는 10억 달러만 우선 지원 후 분기별로 구조개혁 성과에 따라 지속 지원
 - 재정지출 축소, 루피화 약세 기조(중앙은행의 환율개입 자제), 물가 및 이자율 상승, 수입억제, 세금 인상 등 외환보유고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 계속
 - 중앙은행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사회지출 확대, 부유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 에너지 가격 인상 부담에서 저소득층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서민경제 부담은 증가 전망

2020년은 현 정부에게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해가 될 전망

- IMF 구조개혁 추진 첫 해로서 주요 경제지표가 최악의 수준을 시현할 전망
 - 임란 칸 정부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
 - *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경제에 대해 3% 미만으로 급감하는 경제성장률, 10%를 상회하는 최악의 물가상승률, 13%를 넘는 최고 수준의 이자율 등을 예상

- 경상적자가 감소해 외환보유고가 점차 증가세로 전환되면 환율 상승이 대외경제 충격을 완충해 주면서 경제가 점차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
 - * 대외경제 충격 : IMF 구제금융 조건, 환율 변동성 증가, 유가 상승, 카슈미르 분쟁 고조
- o 2020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세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IMF 구조개혁의 성과 여부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가능
 - 경상수지 적자 감소, 외환보유고 증가세로의 전환, 재정적자 완화, 세수기반 확대 등의 구조개혁 노력의 성과에 따라 경제가 반등될 여지 존재
 - 점차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산업 활력 개선 가능

나. 루피화 약세 기조의 지속으로 수입시장 경색 우려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의 약세 기조는 유지될 전망

- o 과거 파키스탄 정부는 무역적자 완화와 투자유치를 통한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2017년 말부터 달러 대비 루피화 환율을 수차례 평가절하 조치
 -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는 2017년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 2019년 6월 말까지 약 50% 하락해 왔으나, IMF 구제금융 확정 이후 다소 안정세

루피화/달러 환율 변화 추이



자료 : Tradingeconomics.com, KOTRA 카라치무역관 종합 정리

- o 최근 10년간 환율변화 추이와 비교 시, 지난 1년간의 환율 급등세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 2013년 IMF 구제금융 수혜 직전 때보다도 상승 폭이 큰 상황

IMF, 2019/20 회계연도의 루피화 평균 환율을 172.53으로 전망

- o IMF는 그동안 과대평가 된 루피화 가치는 소비와 투자 확대(총수요)를 통한 단기 성장효과만 가져왔으며, 재정적자, 부채증가, 외환보유고 고갈의 원인이 되어 왔다고 평가

- IMF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위해 시장자유변동제로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이 최소화될 경우, 루피화 환율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전망
- 2019년 7월 기준, IMF는 루피화 환율이 현 정부의 임기 말인 2022/23 회계연도까지 200루피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달러 대비 루피화 환율(IMF) : (FY20)172.53 → (FY21)183.2 → (FY22)191.75 → (FY23)198.8

환율부담 증가에 따라 수입시장 경색 가시화

- 환율 증가는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IMF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재정 및 통화정책과 맞물릴 경우, 수입시장 경색은 지속될 우려
- 이에 파키스탄 바이어는 수입을 미루거나 물량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의 대(對)파키스탄 수출에 적신호가 예상되는 상황
* 2019년 9월 현재 한국제품의 대(對)파키스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상황

다. 경제회복을 위한 산업과 경제의 부가가치 극대화에 총력

수출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확대

- 정부는 관세구조 합리화(tariff rationalization)를 통한 수출증대, 수출입 활동과 연계된 투자 유치 강화,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documentation),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총력 지원 계획
* 2019년 마련된 'SME Policy 2019(중소기업 정책 2019)'는 신용원활화, 기술향상, 시장접근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중소기업 경제의 공식화(documentation)를 강조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매달 2~3개의 규제를 완화(regulatory guillotine)하고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조치를 강화 중
* 파키스탄 연방세무국(FBR), 2019년 9월 수출기업에 대한 Sales Tax 환급을 투명하게 전자적으로 72시간 내 이행하는 방안을 발표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업협력 노력 강화

- 농업, 섬유, 자동차, 에너지 부문 등에서의 기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유치 및 해외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지속 확대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도 2019년부터 2단계에 진입, 특별경제구역 활성화를 통해 그간의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
* 2019년 파키스탄외국인투자위원회(BOI)는 KP주 Rashakai 지역에 최초로 CPEC 프로젝트 전용 SEZ를 승인했으며, 신드 및 펀자브 주 등의 지역에 5개의 신규 SEZ를 추가 승인 예정
- 아울러 CPEC 프로젝트에 사우디 등 우방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투자 유치 다변화 노력도 병행 중

파키스탄 제품의 선별적 해외시장 접근 강화

- 대(對)중국 무역적자 완화를 위한 중국-파키스탄 FTA 2단계 협상(CPFFTA-II)이 2019년 5월 최종 타결,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의 빠른 이행을 요구 중
 - * 파키스탄 주력 수출품목(섬유 및 의류, 수산물, 육류 및 가공식품, 가죽, 화학, 신발, 석재, 산업재 일부 등)의 대(對)중국시장 접근 강화(즉시관세철폐), 민감 품목 수 확대 등을 관철
- 파키스탄 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강화를 위해 파키스탄-인도네시아 PTA(특혜무역협정)를 적극 추진
 - * 20개의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 접근 강화 기대 → 망고, 쌀, 에탄올, 담배, 섬유원사, 가정용 섬유제품, 의료 및 니트 제품 등이 주요 수혜 품목

라. 새로운 파키스탄(Naya Pakistan) 건설을 위한 개혁 계속

IMF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임란 칸 정부의 개혁정책은 지속 추진

- 정부의 6대 개혁정책 방향 중 경제개혁 조치(거버넌스 혁신, 경제성장, 농업혁신 및 수자원 보존)를 중심으로 이행 노력 가속화 전망
 - * 공기업 민영화,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개선, 섬유산업 수출증진 등을 포함
 - * 농업분야의 고부가치화(새로운 품종개발, 관개수로 개선 등)를 위해 2019년 7월 3천억 루피 규모의 긴급농업육성프로그램(National Agriculture Emergency Programme) 발표
- 또한, 정책 공약 중의 하나인 2023년까지 저가형 주택 500만 호를 공급(Naya Pakistan Housing Project)하는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
 - * 동 프로젝트로 40여 개의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1천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

- 전체 기업의 90%, 산업 고용의 80%(농업 제외), GDP의 40%를 차지하는 320만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
- ICT 수출지원 강화 및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 연간 1,260억 달러 이상의 ICT 수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에 비해 파키스탄의 ICT 수출규모는 20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인적자원 개발 부족, IT 인프라 미흡 및 정부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지원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 IT 분야 인력을 현재 11만 5,000명에서 1백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교육 등) 지원, IT 수출액을 100억 달러로 5배 확대, 5개 테크노 클러스터(SEZ) 구축 등의 내용 포함

마. 자동차 산업 재편에 따른 일본 자동차 독점 구조 완화

한국, 중국 등 신규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진입 본격화

- 2019년 7월부터 기아자동차는 스포티지 양산을 시작, 10월에는 피칸토 모델도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
 - * 현대니샤트자동차는 파이살라바드에 공장을 건설 중이며, 신타페 차량 판매는 2019년 시작, 조립생산은 2020년 초 본격 가동 전망
- 현지 일본 자동차 대비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을 앞세운 한국 브랜드 차량에 대해 파키스탄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상황



자료 : 현대니샤트그룹

일본 자동차 독점 구조가 점차 완화 기대

- 품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고조
 - * 팍스즈키(시장 1위)는 경쟁에 대응해 신규 출시한 신모델 제품의 낮은 품질 문제에 직면
- 스즈키, 도요타, 혼다 등은 경기 침체 및 소비자 불만 등이 맞물려, 일부 모델에 대한 생산 제한 및 공장 일시 폐쇄 등의 조치를 진행한 바 있음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권 교체와 유연한 경제외교 정책으로 대·내외 정치 구도 변화
- IMF 구제금융 여파로 2020년 경제성장을 하락 전망
-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산업 육성과 수입억제 조치 확대
- 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민관협력 프로젝트 확대는 해외기업의 진출 기회
- 정부의 정책 공약이행과 경제개혁 노력 지속

가. 정치 환경

2018년 8월 정권 교체로 대·내외 정치 구도 변화

- ※ 2010년 4월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력집중 해소, 의회기능 회복을 골자로 하는 내각책임제를 채택
- 의원내각제인 파키스탄에서 7월 25일 치러진 총선에서 크리켓 영웅인 임란 칸(Imran Khan)이 이끄는 제2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이 반(反) 부패를 앞세워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승리
 - * 단순 과반은 달성하지 못해 군소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과반의석을 최종 확보
 - * 연방정부는 물론 4개 주정부 모두에서 정국 운영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개혁 추진(New Pakistan) 원동력을 확보
-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수반으로서 연방 상·하 양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함(임기 5년). 현직 아리프 알비(Arif Alvi) 대통령은 2018년 8월 취임
- 임란 칸의 총선 승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 경제정책의 실패, 물가 상승에 따른 중산층·저소득층의 부담 가중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임란 칸 총리는 국제적인 이미지를 활용, 대외적으로도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적 노력 추진
 - 중국, 미국 등은 물론, 중동(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과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 임란 칸 총리의 유화적인 대(對)인도 외교관계 노력에 불구하고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 고조

나. 경제 환경

IMF 구제금융 여파로 2020년 경제성장을 하락 전망

- (경제성장률) 2018/19 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은 3.3%로 전년 대비 2.2%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9/20 회계연도는 2.8%로 더욱 하락할 전망(IMF)
 -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심화, 대외부채 누적,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뚜렷한 경기 하강세를 시현
 - 파키스탄 중앙은행에 따르면 시장 안정에 대한 긍정적 신호, 농업 부문에서의 성장 회복,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 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도 상존
- (물가상승률) 2018/19 회계연도 9개월(2019년 3월말 기준) 소비자 물가상승률(CPI)은 8.3%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 2019/20 회계연도 물가상승률도 긴축통화정책(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조치, 에너지 가격 인상, 환율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2019년 8월 CPI는 기준연도 조정(rebasing) 등이 맞물려 10.5%를 기록했으며, 중앙은행은 2019/20 회계연도는 11~12%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파키스탄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실질 GDP 성장률(%)	4.7	5.5	5.6	5.8	3.3
1인당 GDP(달러)	1,359	1,365	1,462	1,479	1,318
명목 GDP(십억달러)	271	278	304	314	282
물가상승률(CPI)	4.8	2.9	4.2	3.9	7.0

주 : 2018/19 회계연도는 예측치 및 잠정치

자료 : EIU, 파키스탄 재무부, 파키스탄 중앙은행

- (이자율) 2019년 9월 현재 13.25%로서 8년 만의 최대 수준
 -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전력요금 인상과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난 7월 13.25%로 1.0%p 인상
 - EIU Country Report는 2019/20 회계연도까지 추가적으로 1.0%p 인상 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개선되고 외국인투자 유입은 감소되는 추세

- 2018/2019 회계연도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1.5% 감소한 2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는 1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

-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정부의 수입억제 노력 및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이 7.4% 감소 하면서 무역수지를 개선
-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전년 대비 75% 급감했으며,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외기업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이 크게 감소
- IMF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각종 수입억제 조치를 추진, 향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지속 감소할 전망
 - 8년만의 최고수준의 이자율, 환율 상승, 전력·가스요금 인상, 세수확보 노력*, 해외로부터의 송금(remittance)의 증가, 수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 Tax Return Filer 확대(도소매 거래 시 CNIC[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화), 밀수품 단속 강화 등
 - 이는 곧 수입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2019년 7월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
 - 정부는 FY20 경상적자 목표를 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낮게 설정

다. 산업 환경

(주력 수출) 대(對)파키스탄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의 수입 수요는 지속 존재

-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석유화학, 건설 중장비 및 기계류, 냉연강관 등 철강류 등에 대한 파키스탄의 수입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다만, 2019년 8월 말까지 대(對)한국 수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서 합성수지, 윤활유, 냉연강관, 건설 중장비 등의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 추세
 - 이는 제조업 생산(Large Scale Manufacturing)의 10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세, 중국으로부터의 인프라 투자 감소, 자동차 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
- 섬유 염료, 농약, 승용차, 산업기계 등은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유망 수출품목으로 입지 강화
 - 카슈미르 갈등에 따른 인도로부터의 염료수입 감소, 정부의 농업부문 육성 강화, 현대·기아 자동차 현지 공장설립 및 부품수요 확대 등이 주요 원인

(틈새 수출) 농수산업 및 섬유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시 틈새 기회 발굴

- 신(新) 정부는 파키스탄의 전통 수출산업인 농수산업과 섬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여 외화 획득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
 - 농업 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경우 농기계, 종자개발, 가축사료 및 첨가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틈새 수출기회 확보 가능
 - * 또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해 식품가공 산업에서의 합작 투자기회도 점차 확대 예상
 - 섬유 산업의 경우 염료, 섬유기계 등에 대한 수입 수요도 지속 확대 전망

(전략 산업) 자동차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면서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기아 등 우리 자동차 브랜드의 조립생산 공장 본격 가동

- ADP 2016-21* 정책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현지 조립생산 공장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스즈키,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의 승용차 및 상용차(LCV) 시장 독점구조가 완화될 조짐
 - * 「Automotive Development Policy 2016~2021」: 국내외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무관세 설비수입, 부품 수입관세 인하, 로컬 부품-수입산 간의 관세차별 완화,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
-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으로 2021/2022 회계연도까지 파키스탄 자동차 생산량은 2018년 35만 4,000대에서 5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
 - * 다만, IMF 구제금융의 영향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일부 일본 완성차 업체는 일시 공장 폐쇄 및 생산량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
- 현지 제조(localized)가 이루어지는 부품의 CKD(complete knock-down)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품 현지화가 향후 경쟁우위의 관건이 될 전망
 - * 2019년 7월부터 스포티지 조립생산을 시작한 기아럭키모터스의 경우도 점차적으로 부품 현지화율을 높여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자동차 시장경쟁 심화로 신모델 개발, 부품 국산화, 제조역량 제고 등을 위한 해외 자동차 부품 기업과의 협력 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
 - 세계은행에 따르면 파키스탄 자동차산업은 중국(90%), 인도(66%)에 비해 낮은 설비가동률(43%)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부품의 40%를 차지하는 현지 부품협력사의 취약한 경쟁력과 낮은 GVC 편입 수준에 기인한다고 분석
 -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현지 글로벌 자동차 OEM의 부품개발 수요에 기반, 현지 부품기업들과의 소싱, 기술제휴, 조인트 벤처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

(프로젝트) 건설 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주, 인프라 및 환경 산업 분야에서 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프로젝트 기회 상존

- 전력 부족에 따른 수력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될 전망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물론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발전소 운영(O&M) 분야에도 우리 건설 서비스 기업의 현지 진출기회는 지속 존재할 전망
 - * 한전 KPS, 2018년 5월 향후 10년간 1,321억 원 규모의 660MW 석탄화력발전소 O&M 사업 수주
- 파키스탄은 2017년 기준 인프라 개발 부문 민간투자 유치규모(PPI) 기준 전 세계 52개국 중 5위를 차지
 - * PPI: World Bank가 매년 발표하는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지수. 2017년 1위는 중국(175억 달러), 2위는 인도네시아(154억 달러), 3위는 멕시코(86억 달러), 4위는 브라질(73억 달러), 5위는 59억 달러로 파키스탄이 차지(상위 5개국이 전 세계 PPI의 51%를 차지)

- 파키스탄은 59억 달러 규모로 서남아 전체 117억 달러 규모의 절반 수준이며, 2017년 처음으로 인도(48억 달러)보다 높은 민간 인프라 투자유입을 기록
- 따라서 현지 발주처 및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면서 투자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

라. 정책·규제 환경

현 정부는 6대 개혁정책 방향을 적극 이행 중

정부의 6대 개혁정책 방향

6대 개혁 정책 방향	세부 과제
거버넌스 혁신 (Transforming Governance)	- 정치와 관료의 분리, 관료의 독립성 제고 - 정경유착 단절을 위한 정부기관·국영기업 경영개선 * 능력과 전문성 기반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중심 운영
연방주의 강화 (Strengthening the Federation)	- 연방 산하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FATA, 발루치스탄) - 자치가 필요한 지역은 자치권을 과감히 이양(Gilgit Baltistan)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 중소기업 지원, ICT 인프라 개선, 수출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섬유 산업 등 전통 제조업 육성 강화(수출 증진 등)
농업혁신 및 수자원 보존 (Agricultural Reform and Conservation of Water)	- 농업 종사자에 대한 재정 보조 및 대출 지원 확대 -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 및 대외협력 강화 * 새로운 품종 개발, 관개수로 개선 등 인프라 개선 포함
사회 서비스 혁신 (Revolutionize Social Services)	-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시스템 개선, 의료 보험 수혜 계층 확대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강화
국제안보 위상강화 (Ensuring National Security)	- 경제발전을 위한 인도, 중국, 미국 등과 유연하고 개방적 외교 - 국제안보에서의 파키스탄 위상 강화를 위해 외무부 기능 강화

자료 : 현지 언론 등을 참고하여 카라치무역관 자체 정리

-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신(新) 정부는 철도 등 기간산업 운영에서 정부 인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조치할 계획
 - 부실한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이고 성과 중심의 전문경영 시스템 도입 추진
 - * Pakistan Steel Mills(철강), 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항공), K-Electric(전력) 등이 대상이며, 2013년 IMF 구제금융 이후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신정부는 거버넌스 개혁에 초점
- 향후 5년간 1천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
 - 전체 기업의 90%, 산업 고용의 80%(농업 제외), GDP의 40%를 차지하는 320만 중소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ICT 분야 수출지원 강화 및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전망

* 연간 1,260억 달러 이상의 ICT 수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에 비해 파키스탄의 ICT 수출규모는 20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인적자원 개발 부족, IT 인프라 미흡 및 정부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지원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음

-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 외환보유고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가 불가피하며 중-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따른 인프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노력 전망
 - 특히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 활발

정부는 2019년 9월 초 취임 1주년 개혁 정책 성과를 발표

- 임란 칸 총리가 직접 수차례 외국인투자위원회(BOI)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특별경제구역 활성화 성과를 거양
 - * 2019년 파키스탄 외국인투자위원회(BOI)는 KP주 Rashakai 지역에 최초로 CPEC 프로젝트 전용 SEZ를 승인했으며, 신드 및 펀자브 주 등의 지역에 5개의 신규 SEZ를 추가 승인 예정
- 2019년 세계은행의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가 전년 대비 11단계 상승한 139위를 기록, 2020년에는 추가로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
 - * 복잡하고 느렸던 정부의 각종 행정절차 및 투자기업을 위한 전력 및 가스 연결 기간도 대폭 단축
- 세금환급을 위한 등록자 수가 2018년 140만 명에서 2019년 240만 명으로 62% 증가하는 등 세수기반 확대 성과 거양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선별적 FTA 추진

- 파키스탄은 대외무역 성과 제고를 위해 FTA 체결 추진
 - 이란(2006년), 중국(2007년), 스리랑카(2008년), 말레이시아(2008년)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발효 중
 - 2019년 상반기에 중국과의 2단계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터키, 태국 등과 FTA의 협상도 진행 중
 - 향후 베트남, EU, 이집트, 사우디 등과 FTA 체결도 검토 예정
- 그러나 무역적자 악화로 진행 중인 FTA 협상 타결에 난항
 - 무역적자 확대, 피해 업계의 반발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터키, 태국 등과의 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음에도 타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음
 - * 연내 타결이 유력했던 파키스탄-태국 FTA 협상도 태국과의 무역적자 증가 속도가 빨라 협상 마무리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선별적 FTA 추진을 통한 주력 수출품목의 해외시장 접근 강화는 추진

- 대(對)중국 무역적자 완화를 위한 중국-파키스탄 FTA 2단계 협상(CPFTA-II)이 2019년 5월 최종 타결,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의 빠른 이행을 요구 중
 - * 파키스탄 주력 수출품목(섬유 및 의류, 수산물, 육류 및 가공식품, 가죽, 화학, 신발, 석재, 산업재 일부 등)의 대(對)중국 시장접근 강화(즉시관세철폐), 민감 품목 수 확대 등을 관철
- 파키스탄 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강화를 위해 파키스탄-인도네시아 PTA(특혜무역협정)를 적극 추진
 - * 20개의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접근 강화 기대 → 망고, 쌀, 에탄올, 담배, 섬유원사, 가정용 섬유제품, 의류 및 니트 제품 등이 주요 수혜 품목
- 향후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기존의 PTA를 FTA로 격상하여 MERCOSUR와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될 가능성이 높음
 - * MERCOSUR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 시장 분석

파키스탄은 풍부한 인구나 자원을 보유한 거대 잠재시장이나 인프라 미비, 치안불안이 본격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만성적 쌍둥이 적자와 누적된 대외 부채가 시장불안을 가속화하고 있음. 2019년 IMF 구제 개혁과 신정부의 경제혁신 노력은 그간 정체되었던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업그레이드와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전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서남아 제2의 거대 잠재시장

- 풍부한 인구나 자원을 보유한 미개척 신흥시장
 - 파키스탄은 인구 2억 명이 넘는 세계 6위 인구대국으로서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8~29세 청년층 인구 비중이 30%를 상회
 - * 2019년 MSC는 파키스탄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존의 'Emerging Market' 지위를 유지
 - 한반도의 3배가 넘는 국토면적에 천연가스, 석탄, 구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잠재 유망시장
- 인프라 투자 및 건설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프로젝트 시장
 - 정부는 전력부족 완전 해소를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수력발전소 증설을 적극 추진 중이며,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증가
 - 또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등 건설 프로젝트는 다소 감소된 규모지만 지속될 예정으로 건설기계, 건축자재 등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
- 철저한 가격 위주의 시장, 그러나 점차 품질에 대한 인식도 증가
 - 파키스탄에서는 품질보다 가격 자체가 구매결정의 핵심 기준
 - 이에 따라, 2007년 7월 중국-파키스탄 FTA 발효 후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 중국제품이 현지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왔으나, 중국산 제품의 품질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품질에 대한 인식도 점차 증가
- 치안불안은 상존하나 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
 - 상시 정치불안, 종교갈등으로 탈레반 등 무장세력의 테러가 지속 발생
 - 탈레반과 실질적인 내전 상태로 외국기업의 진출 기피 등이 성장의 걸림돌
 -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순위는 190개 국가 중 136위
 - 그러나 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 주요 시장을 잇는 교두보 지역이며,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테러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등 정세가 안정되는 중

나. 교역

교역 동향

- 2018/2019 회계연도 파키스탄의 교역규모는 766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으며 수입 감소가 교역규모 감소를 주도
 -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242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23억 8,800만 달러를 기록
-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한 281억 달러를 기록, 2017/18 회계연도에 역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다시 감소

파키스탄 대외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수출액	24,090	21,972	22,003	24,772	24,224
수입액	41,357	41,225	48,683	56,592	52,388
교역규모	65,447	63,197	70,686	81,364	76,612
무역수지	-17,267	-19,253	-26,680	-31,820	-28,164

자료 : State Bank of Pakistan

품목별 동향

- (수출) 2018/2019 회계연도 기준, 최대 수출품목인 섬유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1%만 증가한 135억 달러를 기록
 - 섬유제품에 이어 4대 수출품목인 식품 및 농수산물(-3.72%), 기타 제조업 제품(-7.79%), 화학 및 의약품(-12.02%)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를 견인

주요 품목별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2017	2017/2018	2018/2019	증가율
섬유제품	12,456	13,376	13,564	1.41
식품 및 농수산물	3,609	4,817	4,638	-3.72
기타 제조업 제품	3,651	4,133	3,811	-7.79
화학 및 의약품	1,110	1,389	1,222	-12.02
석유제품 및 석탄	412	574	675	17.6
스포츠용품	551	551	517	-5.99
가죽제품	486	614	503	-18.08
수술용 의료기기	395	441	437	-0.91
시멘트	242	223	291	30.49
엔지니어링제품	182	233	237	1.72
신발	75	87	100	14.94
카펫, 매트	93	84	77	-8.33

자료 : State Bank of Pakistan

- (수입) 2018/2019 회계연도 주요 품목별 수입은 원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
 - 원유 제품만 14% 증가한 49억 달러를 보였으며, 대부분 전년 대비 두 자리 수의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수입 감소를 야기

주요 품목별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2017	2017/2018	2018/2019	증가율
석유제품	6,379	6,768	6,038	-10.7
원유	2,764	4,310	4,914	14.0
식품	5,417	5,501	4,750	-13.6
플라스틱소재	1,875	2,311	2,273	-1.6
철강	1,980	2,539	2,008	-20.4
수송기계	1,774	2,182	1,934	-11.3
팜유	1,775	1,908	1,661	-12.9
전기기기	1,317	1,800	1,286	-28.4
일반기계	7,317	1,800	1,268	-28.5
섬유제품	1,489	1,536	1,243	-19.7
통신장비	1,023	1,396	1,172	-16.0
철강스크랩	969	1,332	1,154	-13.4
비료	572	787	772	-1.91
발전기계/장비	1,336	1,576	731	-53.6
항공기, 선박	606	939	291	-69.0

자료 : State Bank of Pakistan

경쟁 동향

- 2018/2019 회계연도 파키스탄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7.6%), 영국(7.2%), 독일(5.3%), 아프가니스탄(4.9%) 순으로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한국은 1.2%)

주요 국가별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2016/2017	2017/2018	2018/2019	증가율	비중
미국	3,685	3,862	4,037	4.34	16.67
중국	1,624	1,774	1,851	5.65	7.64
영국	1,603	1,768	1,756	-1.01	7.25
독일	1,133	1,476	1,305	-4.40	5.39
아프가니스탄	1,237	1,363	1,192	-20.21	4.92
아랍에미리트	934	1,114	1,117	-1.76	4.61
스페인	803	939	928	-1.49	3.83
이탈리아	643	778	947	4.55	3.32
네델란드	667	766	743	21.57	3.91
방글라데시	623	724	299	2.20	3.07

자료 : State Bank of Pakistan

- 2018/2019 회계연도 파키스탄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1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두바이(11.3%), 싱가포르(6.3%), 사우디(5.7%), 미국(4.0%) 순으로 상위 5개국에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한국은 1.5%)
 - 미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일부 두바이 및 쿠웨이트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증가세를 나타냈음

주요 국가별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2016/2017	2017/2018	2018/2019	증가율	비중
중국	10,077	11,457	10,161	-11.43	19.4
UAE Dubai	4,940	5,982	5,925	-1.81	11.31
싱가포르	3,906	4,471	3,326	-25.61	6.35
사우디아라비아	2,226	3,081	2,985	-3.12	5.7
미국	2,102	2,076	2,096	0.91	4.0
UAE Fujairah	1,339	1,463	2,030	26.88	3.87
인도	1,688	1,815	1,594	-12.22	3.04
일본	1,696	1,875	1,524	-18.76	2.91
쿠웨이트	1,220	1,146	1,206	5.24	2.3
카타르	1,148	1,521	1,069	-24.18	2.04

자료 : State Bank of Pakistan

수입규제 동향(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 2019년 6월 30일 기준, 파키스탄은 24개국 20개 품목에 대해 53건의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이며 2건은 조사 진행 중
 - * 조치 중인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는 2018년 말 대비 총 8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45건 → 53건)
 - 규제형태 : 반덤핑 54건(52건 규제 중, 2건 조사 중), 상계관세(1건 규제 중)
 - * 2017년 10월 인도산 면사(cotton yarn)에 규제를 부과한 상계관세 1건 외 전 세계 대상으로 모두 반덤핑 규제만 부과 중
 - 대상국가 : 중국(17건), 한국/인도네시아/인도(각 4건), 태국/대만(각 3건), 남아프리카공화국/아랍에미리트(각 2건), 방글라데시/벨기에/브라질/EU/이란/일본/요르단/말레이시아/오만/사우디아라비아/스리랑카/터키/우크라이나/미국/캐나다/러시아(각 1건) 순임
 - * 캐나다와 러시아는 조사 진행 중이며, 인도의 4건 중 1건은 상계관세임
 - 규제품목(품목 수 기준) : 철강(8건), 화학(5건), 섬유(4건), 기타(5건)
 - * 철강 품목 8건 중 2건은 조사 진행 중
- 2019년 6월 30일 기준 대한(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로서 이미 조사가 완료된 품목으로 화학 3건 및 기타 1건임

- 2018년 1월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술폰산(Sulphonic Acid) 품목 관련 조사를 마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21.5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2018년 4월에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품목에 대한 최종 판정에 따라 업체별로 LG화학에는 4%, 나머지 업체에는 14.97%의 반덤핑 규제 부과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11.7.2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8.31 : 반덤핑 조사개시 - '10.9.27 : 예비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에보닉 14.77%, 한솔 0.58%, OCI 1.28% - '11.7.2 : 최종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에보닉 14.77% * '10.9.27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부과 * 덤핑마진률이 2% 이하로 판정된 3개사는 미부과 (OCI 계열 2개사, 한솔) - '15.9.2 : 일몰재심 개시 - '17.1.20 : 일몰재심 종료, 관세부과기간 연장 * '15.9.2기준 5년 연장
백판지 (Coated Duplex Board-Grey Back)	4810.9200, 4810.9900	반덤핑	'16.1.30	'17.7.2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30 : 반덤핑 조사 개시 - '17.5.12 : 예비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14.98% - '17.7.29 : 최종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14.98%, 중국:18.57% 인도네시아 :16.22%
술폰산 (Sulphonic Acid)	3402.1100	반덤핑	'16.11.28	'18.1.27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1.28 : 반덤핑 조사개시 - '17.5.25 : 예비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31.26% - '18.1.27 : 최종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21.59%
폴리염화비닐 (PVC: Polyvinyl chloride))	3904.1090	반덤핑	'16.11.29	'18.4.25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1.29 : 반덤핑 조사 개시 - '17.6.13 : 예비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11.18% - '18.4.25 : 최종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화학 : 4% · 기타 : 14.97%

자료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 비관세장벽(자료 : KOTRA 자체 조사)
 - 철강관련 정부조달 시장 진출 시, 파키스탄 정부 산하 지역배전업체에서 배전 변압기 조달 시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사용을 제한
 - 방향성 전기강판은 톤당 가격이 일반 철강제품의 약 8배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으로서 약 2만 5천~3만 톤 규모가 현지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 투자

투자 동향

- 국가별 대(對)파키스탄 투자현황
 -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수입 규모는 2018/2019 회계연도 기준 17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 감소
 - 2018/19 회계연도에는 최대 투자국인 중국의 대(對)파키스탄 투자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면서 투자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 전년 대비 영국, 미국 등의 투자는 크게 감소하고 일본, 터키, UAE 등의 투자는 증가

주요 국가별 대(對)파키스탄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중국	319.1	1,063.60	1,211.70	1,812.60	546.8
영국	169.6	151.6	215.8	307.5	185.2
미국	223.9	13.2	44.6	136.3	88.6
네덜란드	-34.5	29.9	457.6	100.2	68.4
스위스	-6.5	58	101.8	79.4	21.2
일본	71.1	35.4	57.7	59.8	117.3
이탈리아	115.4	105.4	60.5	56.6	51.9
터키	43.4	16.8	135.6	29.8	73.8
오스트리아	24.8	42.7	21.7	27.4	7.6
UAE	213.6	109.7	120.5	10.9	102.5
홍콩	136.2	93.3	17.2	4.1	130.1
기타	-288.2	585.7	301.9	467.4	343.7
합계	987.9	2,305.3	2,746.8	3,092.0	1,737.1

자료 : State Bank of Pakistan, Board of Investment

- 우리기업의 투자 동향
 - 한국기업의 대(對)파키스탄 투자는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이전(2011/2012~2014/2015 회계연도)에는 연평균 2,5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4/2015년 회계연도 이후 급격히 줄어들면서 2017/2018 회계연도에는 7백만 달러까지 감소
 - 그러나 2018년 롯데칠성음료가 라호르 지역의 음료기업인 리아즈 보틀러스(Riaz Bottlers)의 사업 분할합병을 통해 설립된 합작법인 롯데악타르베버리지(Lotte Akhtar Beverage)의 지분 52%를 약 580억 원에 인수하면서 투자액이 급증한 바 있음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열악한 현지 전력사정, 테러 발생 등 불안한 치안여건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파키스탄 진출은 부진한 상황

- 현지에서 활동 중인 투자진출 기업은 총 23개이나 발전 프로젝트 건설업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 롯데콜슨, 대우고속버스 등 소수의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
- 국내기업의 투자진출 시 파키스탄 정부가 약속했던 인센티브 혜택(법인세 및 일반판매세 환급 등) 이행이 지연되면서 기업경영 애로를 야기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한국과의 무역 동향

- 2018년 한-파키스탄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5.5% 증가한 13.9억 달러로 수출증가는 1.1%에 그쳤으나, 수입 증가가 교역규모 증가를 견인
 - * 수출은 역대 최대인 10.1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수입은 19.7% 증가한 3.79억 달러를 기록
- 그러나 2019년 8월 기준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특히, 한국제품의 대(對)파키스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한 상황

한-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액	790	2.6	829	4.9	1,007	21.5	1,018	1.1	563	-20.5
수입액	285	-29.2	283	-0.5	317	12.2	379	19.7	309	4.2
교역규모	1,075	-8.4	1,112	3.4	1,324	19.3	1,397	5.5	872	-11.7
무역수지	505	37.2	546	8.1	690	26.4	638	-7.5	254	-28.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품목
 - 2018년에는 건설중장비(-33.3%)와 의약품(-27.9%)를 제외, 주요 수출품목인 합성수지(13.6%), 윤활유(1.4%), 냉연강판(60.2%) 등의 대(對)파키스탄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대(對)파키스탄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MTI	수출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1	2140	합성수지	78,144	108,810	123,608	13.6
2	1336	윤활유	69,733	106,767	108,214	1.4
3	6133	냉연강판	34,524	42,610	68,271	60.2
4	2190	기타 석유화학 제품	41,871	54,265	55,035	1.4
5	7251	건설 중장비	55,691	70,859	47,294	-33.3
6	6261	아연과 및 스크랩	17,004	38,110	41,129	7.9
7	2211	염료	28,390	29,894	32,738	9.5
8	9701	무기류	57	14,370	29,668	106.4
9	6134	아연도 강판	23,796	26,796	24,638	-8.1
10	2262	의약품	58,102	33,595	24,233	-27.9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입품목

- 최대 품목인 나프타(39.7%) 수입이 전년에 이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편직제 의류(89.7%), 주류(57%), 기타 비금속 광물(32.9%) 등의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어육(-31.8%), 기타 가죽(-25.8%), 면사(-3.2%) 제품의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

대(對)파키스탄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MTI	수입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1	1334	나프타	56,569	75,901	106,026	39.7
5	0157	주류	36,849	28,164	44,390	57.6
2	6221	동괴 및 스크랩	5,439	34,209	38,642	13
3	4331	순면직물	36,480	32,996	35,464	7.5
4	4213	면사	37,504	32,105	31,090	-3.2
6	4411	편직제 의류	13,224	14,608	27,712	89.7
8	1290	기타 비금속 광물	9,346	12,549	16,673	32.9
7	3319	기타가죽	19,579	14,137	10,493	-25.8
10	4412	직물제 의류	7,597	7,416	9,078	22.4
9	0451	어육	11,279	12,138	8,282	-3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기업 수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수출 성공 사례: A사(품목: 철강)

- 2018년 1차 해외시장 진출유망 품목 화상 상담회(4.10) 참가
- 현지 자동차 산업분야 유력바이어 P사, J사 등과 화상상담을 진행한 후 1만 7,000달러의 소규모 수출성약 거양
-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2018년 8월부터 카라치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가하여 추가 수출성약 1만 5,000달러 창출
- 한-파키스탄 오토파트즈 콜라보 2018(2018. 9. 12, 카라치) 행사에 참석하여 유망 바이어 24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중 50%의 바이어와 향후 1년 안에 2백만 달러 수출성과가 유망 하다고 평가
- 사업 참가 후 상담 후속지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바이어 3개사와 추가적인 성약을 달성하고 현재까지 성약규모는 20만 달러를 상회
- 2017년에 창업한 철강 분야 전문무역상사(청년 창업가)로서 창업 초기의 해외 마케팅 인력 부족을 KOTRA 서비스를 심분 활용하여 해결,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면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양한 사례

- 수출 실패 사례: B사(품목 : LED)
 - ‘KOTRA 해외진출토탈패키지(2017.9.22~2018.3.21)’에 참가하여 파키스탄 주요 7개 도시 LED 공공조달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 추진
 - 현지 출장도 시행하면서 시정부의 조달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행
 - 신규 개발되는 B타운 공공조달 프로젝트(2만 5,000개) 입찰에 참가하여 참여기업 9개사 중에 2개사 제품이 낙찰되었으나 B사는 선정되지 못함
 - 타깃 조달시장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낙찰 유력 가격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 하였으나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현지 조달시장의 특성상 만족스러운 가격을 제시하지 못해 낙찰에 실패
 - 파키스탄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다소 마진이 작더라도 초기에는 품질과 이미지를 명확히 인식시킨 뒤, 구매 고객층이 형성되었을 때 정상적인 마진 가격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임
 -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격 전략과 제품 개발계획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

나. 투자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동향

- 2019년 9월 기준 2015~2019년간 우리나라의 대(對)파키스탄 직접투자금액 누계는 1억 7,723만 달러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5,352만 달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어 전기·가스(5,327만 달러), 건설업(776만 달러), 도소매업(113만 달러) 순으로 제조업과 전기·가스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

우리기업의 대(對)파키스탄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건)

구분	신규 법인수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5	1	10	29,666	12	23,746
2016	3	9	631	3	119
2017	3	10	11,037	10	7,754
2018	4	24	75,848	24	74,971
2019(9월)	2	9	17,701	8	9,415
합계	13	62	134,883	57	116,00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기업 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

-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 사례
 - L사는 주력산업인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화학섬유의 원료) 사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던 중 세계 최대의 코팅 생산업체 A사가 파키스탄 PTA 사업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됨
 - 파키스탄 내 유일한 생산업체로 관세 및 운송료 등의 비용에서 수입산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 섬유 산업의 성장이 9~10%로 견실한 점,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원료 확보가 유리한 점, 아울러 PTA 생산이 부족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에서 유리한 지리적 위치 등 기회 요소를 확인하면서 향후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마련해나감
 -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8년 11월 Non-binding offer를 제출하고 10개월 만인 2009년 9월 A사와 지분인수 계약을 마무리함
 - 환차 관리를 위해 제의 판매가격을 국제가인 달러에 연동하고, 매월 루피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름의 헤징(Hedging) 방법을 마련
- 우리기업 투자진출 실패 사례(J사, 자동차용 단조 부품)
 - 파키스탄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로 2004년에 설립
 - 현지기업은 공장 부지와 건물 투자, 국내기업은 설비를 투자
 - 설립 초기 수출주도형 기업으로서 생산품의 70%를 수출하였으나, 현지 파트너사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신규 투자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2010년 투자했던 설비를 매각하며 철수
 - 합작 투자의 경우 국내기업이 관리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현지 경영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현지 파견인력 1인이 자재구매, 생산관리, 판매 및 마케팅까지 담당하면서 경영관리상의 한계를 노출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파키스탄 FTA 협상 추진

- (필요성)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 덕분에 쟁점요소가 적어 FTA 체결 시 양국 교역 확대 가능
 - * 양국 간 산업구조 차이에 따라 대(對)파키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의약품, 기계류, 철강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섬유류, 농식품
 -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전에는 한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3%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치안 불안, 중-파 FTA, 중-파 경제회랑(CPEC)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정체
 - * 한국은 2018/2019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20위 수입국으로서 1.55%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시현했으며, 중국(1위)은 19.4%, 일본(8위)은 2.9%로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반면에 중국은 2007년 중-파 FTA 발효 이후 중국제품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가는 중
- (전망) 한-파 FTA 공동 타당성 조사 완료, 협상 개시는 미지수
 - 2015년 7월 파키스탄 상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제1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 FTA 민간공동연구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함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파키스탄무역개발원(PITAD) 간 한-파 FTA 공동 타당조사 진행
 - 2015년 10월 UN 총회 시 양자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파키스탄 FTA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2017년 1월 FTA 민간공동연구 완료
 - 2017년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제2차 한-파 무역투자공동위를 개최, 한-파 FTA 민간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FTA 추진방향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 2019년 8월 라작 다우드 상무장관의 방한(산업부 장관 면담) 시, 파키스탄 경제혁신을 위한 한국과의 무역 자유화 확대*를 논의
 - * 한-파 FTA Early Harvest 계획(20-30개 품목 우선 무역 자유화) 등을 논의

투자유치 확대 및 산업 생산성 제고 지원

- 만성적 외화부족, 제조업 및 수출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신정부는 특별경제 구역(SEZ) 확대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추진
 - * CPEC에 따른 인프라 개선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부족, 제조업 육성경험 부재, 행정 비효율 등으로 투자유치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애로 존재
- 한국의 투자유치 역량과 경험을 전수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기업과의 협력확대 발판을 조성하는 KSP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



Ⅲ. 진출전략

〈인구 2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미개척 신흥시장〉
 2020년 파키스탄 진출확대를 위한 핵심전략은 경제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수출을 넘어서 현지 기업·정부와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임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파키스탄 시장 SWOT 분석>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ADD8E6;"> <p>S</p> <p>강점 (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 영어 구사 인력채용 용이 • 인프라 건설 투자 지속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 접근성 양호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80800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8FBC8F;"> <p>W</p> <p>약점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부족 등 열악한 비즈니스 인프라 • 경제 불안 및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 인력 해외유출로 인한 고급인재 부족 • 위생, 환경 등 어려운 생활환경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3CB371;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3CB371; color: white;"> <p>O</p> <p>기회 (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투자 지속 확대(CPEC 2단계) • 한국제품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 신정부 출범 ⇒ 경제개혁 및 FDI 정책 강화 • 수출 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 확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80008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 <p>T</p> <p>위험 (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지속 및 치안 불안 • 중국제품 유입 가속화로 시장질서 교란 • 인도와의 카슈미르 갈등 고조 • IMF 구제 금융에 따른 경기 하락 </div>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맞춤형 융복합 진출 프로젝트 발굴 • 현지기업과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 확대 	상생협력형 B2B 사업개발 강화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제품과 차별화한 마케팅 전략 • 보안, 방산, 산업재 등 유망품목 집중공략 	틈새 수출유망 품목 발굴·지원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육성분야로의 진출기회 모색 •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산업 집중 공략 	경제위기 극복지원 협력의제 선점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문제해결 지원을 비즈니스 기회로 • 경제협력 K패키지 아젠다 발굴 	동반성장형 경제협력 강화

Ⅲ
진출전략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정부의 경제혁신 방향에 부응한 사업기회 개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8년 임란 칸의 제2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이 반부패 기치로 내걸고 총선 승리
→ 새로운 파키스탄(New Pakistan) 건설을 위한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
-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 우리기업의 진출기회로 활용
*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분야 등에 우리기업의 참여 추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파키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 개선 기대(New Pakistan)
 - 중산층, 저소득층, 젊은 세대는 물론 군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부유층까지 포용하여 파키스탄 전역에 지지기반을 확보
*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이 칸 총리의 주변에 포진, 개혁 정책을 이행 예상
 - 중국, 인도,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은 물론, 중동의 우방국과도 경제 중심의 실리적인 외교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
* 칸 총리는 중국 및 미국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우디, 카타르, UAE 등 중동의 우방국을 순방하면서 긴밀한 경제협력 증진을 추진
- 경제정책 변화를 모니터링 ⇒ 리스크 완화 및 진출기회를 동시에 모색
 -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디지털 인프라 개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지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 전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및 정책 분야 집중 공략
 - ICT 및 교육 인프라 개선, 섬유·농수산업 수출경쟁력 제고, 저비용 5백만 호 주택 공급, 연방 주의 강화 등의 정책에서 파생되는 산업 분야 주목
* (유망 분야) IT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수주, 섬유기계 및 원료 수출, 농수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인프라 개선 지원, 주택단지 설계 및 시공 서비스, 보안 및 안전장비 수출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5백만 호 건설 공약과 우리기업의 기회

-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신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
- 정부는 물론 민간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될 전망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분야에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해외사에게 적극 벤치마킹 전망
⇒ 우수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2020년 본격 추진 시 시멘트, 아연 및 철강, 건설기계 등 파생 연관 산업 붐도 조성되면서 관련 분야에서 수입 수요 확대

○ 투자유치 강화 등 자국 중심의 경제정책을 감안한 진출방식 다변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이 많아 단순 수출확대보다는 현지기업과 제휴를 통한 상생전략 필요

* (유망 분야) 제조역량 개선, 기술 향상, 설비 개선 등의 분야 기술제휴, 합작투자 등

Digital Pakistan 정책과 우리기업의 활용 전망

- Digital Pakistan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으로 향후 본격 정책 입안 시 IT 분야 강점이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기대
 - ⇒ 전 정부의 말기에 수립한 Digital Pakistan Policy의 긍정적 승계가 예상됨
- 인센티브, 현금지원, IT 소프트웨어 테크노파크 운영(STP) 등이 골자일 것으로 예상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기능 활성화, IT 하드웨어 제품 생산 촉진 등도 도모
 - ⇒ 유망품목 : PC, 노트북, 핸드폰, 네트워크 장비, LED, 안전 및 보안 시스템 제품 등
-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기능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 전망
- 재원 부족으로 EDCF 등 유상원조, PPP 등 민자유치, 장기 리스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2-2. 중국제품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CPEC 투자 활성화로 도로 및 물류 인프라 개선
 - *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중국제품의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공세를 우회하는 틈새전략 필요
- 인터넷 브로드밴드 보급률 개선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 * Euromonitor International는 2016~21 소매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1위 파키스탄(8.2%), 2위 카메룬(7.4%), 3위 한국(5.8%), 4위 인도(5.3%) 등을 선정(자료 : Bloomberg)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산업재) CPEC 등으로 중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확대되면서 소비재는 물론 산업재 분야에서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제품의 시장점유율 가속화
 - 그러나 현지 업계에서 중국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품질의 이미지가 좋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 한국 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초기 진입 시 애로로 작용 가능
- (소비재) 파키스탄 유통시장 규모는 매년 8% 내외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IMF 구조 개혁으로 2018/19 회계연도에는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
 - (오프라인) 전통적으로 250만 개의 소규모 매장을 중심으로 분산된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차 대형화, 통합화, 가치 구매의 추세를 보임
 - * 다양한 제품에 대한 원스톱(one-stop) 쇼핑이 가능한 대규모 도소매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향후 3년간 오프라인 유통망 매출규모가 연평균 8% 이상 성장(300억 달러 이상)할 것으로 전망 ⇒ 규모가 작은 소매장 수는 점차 감소하고, '가치 구매' 확산

-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7/18 회계연도에 2.5억 달러를 상회,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시장규모가 2배(93.7%) 성장

* 3G/4G 인터넷 보급 확대로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비패턴도 변화 중이며, 이용자도 2007년 인구의 6.5%에서 2017년 25%로 급성장 → 2019년까지 5,600만 명 돌파 전망

* 온라인 쇼핑 결제의 85% 이상이 Cash on Delivery(COD) 방식이나,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터넷 뱅킹 결제방식 이용도 점차 확대 중(인터넷 뱅킹 이용자는 180만 명에 달함)

중국 알리바바(Alibaba)의 파키스탄 진출 확대 현황

- 2018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파키스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Daraz.pk사를 인수하는 등 알리바바는 인도 이외의 서남아 대안시장을 발빠르게 공략 중
 - * 알리바바 그룹은 인도시장에서 아마존과 월마트(플립카트)에 밀리고 있는 상황
- 알리바바는 2017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Ant Financial(舊알리페이)의 Telenor Microfinance Bank 지분 45%를 인수
- Daraz사는 배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문 물류 자회사인 Daraz Express(DEX)를 설립, 대(對)고객 서비스를 제고 중
- 아울러 온라인 셀러 지원을 위해 파키스탄 전역에 4개의 대형 웨어하우스와 50여 개의 서비스 허브(service hub) 마련, 해당 거점에 판매 물건을 맡기면 고객에게 적시 배송 가능
 - * 아울러 Daraz 구매오더의 50% 이상이 카라치, 라호르, 이슬라마바드 등의 대도시 이외의 교외 및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산업재)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을 토대로 현지기업에 대한 마케팅 강화
 - 가격 중심의 파키스탄 시장에서도 점차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 중이며, 현지 공공조달(국제기구 자금 연계) 시장 집중 공략 필요
 - * (진출 포인트) 단기적 성과보다는 마진이 작더라도 초기에는 품질과 이미지를 명확히 인식시킨 뒤, 구매층이 형성되었을 때 정상적인 마진 가격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전략 필요
 - * (유망 분야) LED 등 에너지 절감, 철강 등 제조 원자재, 생산설비 업그레이드, 방산조달 등
- (일반소비재) 프리미엄 소비자 공략을 위한 현지 유통망과의 네트워크 구축 확대 및 소비재 전문 전시회 참가 등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오프라인) 해외 고급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디스트리뷰터와 협력 및 에이전트 발굴 확대, 현지 전시회에 직접 또는 에이전트 대행 참가 필요
 - * 파키스탄에는 약 1,000~1,500개의 도매상이 존재하고, 대부분 카라치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에 대한 독점 유통계약 형태로 사업을 운영
 - * (진출 포인트) 해외 브랜드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대형 디스트리뷰터와의 협력 확대와 자체적인 현지 유통 벤더 및 에이전트 기업 발굴을 적극 병행하는 노력 필요
 - (온라인) 소비자에게 직접 적기 배송하거나 온라인 유통망의 물류센터에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협력업체나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

- *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은 직접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B2C 마켓플레이스만 제공
- * (진출 포인트) IT 제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Telemart CEO에 따르면 해외제품의 많은 물량이 두바이 등 제3국의 물류센터를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파키스탄 바이어가 많이 방문하는 중동 지역 전시회 참여 및 제3국 소재 에이전트 발굴도 병행할 것을 권고

파키스탄 유통시장 공략을 위한 KOTRA 카라치무역관 제언

- 저소득 신흥국 소비자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제품 선정 및 개발 필요
 - 파키스탄 소비자는 고가격 고품질 제품보다는 중저가의 평균적인 품질과 사양의 제품을 선호
 - 초기에는 마진이 작더라도 품질과 이미지를 명확히 인식시킨 뒤, 구매층이 형성되었을 때 정상적인 마진 가격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전략 필요
 - 기존 제품을 수출하기보다는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좌우하는 핵심 구매결정 요인(Key Buying Factor)을 파악하고, 디자인과 기능을 간소화하는 등 신흥국 맞춤형 R&D도 적극 검토
 - 가격 인하를 위해 완제품 수출방식에서 현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CKD 조립생산도 검토
⇒ 2억 명의 거대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한 투자는 향후 수요 확대 시 충분히 보상 가능
-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알리바바의 사례를 참조하여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 모색 가능
 - 알리바바 그룹은 2017년 5월 파키스탄 무역진흥기관(TDAP)과 MOU를 체결,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 인수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 확대도 검토 필요

2-3. 현지 투자진출 유망 프로젝트 발굴 강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IMF 구제금융 시 긴축재정, 수입억제 등이 연계되면서 외국제품의 수입에 제동 가능
 - * 루피화의 가치 하락, 수입억제 정책 확대, 물가 및 이자율 상승에 따른 소비수요 위축
- 파키스탄의 전략적 위상을 활용한 비즈니스 루트 재편 수요 증가
 - * 미국·중국 및 인도·파키스탄 간등으로 교역루트 재편을 위한 물류·생산거점화 움직임 증가
 - * 낮은 인건비와 물류비(outbound)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활용도 증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IMF 구제금융에 따라 경제성장 동력 위축 예상
 - 정부는 대외채무 부담, 만성적 무역적자,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IMF 구제금융 협상을 추진, 2019년 7월, 60억 달러의 구제금융 확정
 - * 과거 파키스탄은 1980년 이후 12차례의 IMF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3년 66억 달러, 역대 최대금액은 2008년의 76억 달러였음
 - IMF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긴축재정·통화정책, 루피화 환율개입 완화, 세수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
 - * IMF 구제금융 조건이 신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측면이 많아 신정부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 가능

○ 추가적인 루피화 가치 하락이 예상되면서 수입수요 경색 우려

- IMF는 과대평가 된 루피화 가치가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한 단기 성장효과만 가져왔으며, 쌍둥이 적자, 부채증가, 외환보유고 고갈의 원인이었다고 평가
- IMF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위해 시장자유변동제로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이 최소화될 경우, 루피화 환율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전망
- 2019년 7월 기준, IMF는 루피화 환율이 현 정부의 임기 말인 2022/23 회계연도까지 200루피 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루피화/달러 환율 전망(IMF) : (FY20)172.53 → (FY21)183.2 → (FY22)191.75 → (FY23)198.8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수입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집중 공략

- 단기적으로는 소비재나 완제품보다는 파키스탄 산업 및 경제성장에 불가피한 부품소재나 원자재 등에서 B2B 시장 공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 파키스탄은 국내 산업기반이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성향(propensity to import)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IMF 구제금융 조건(Extended Fund Facility) 협상 시 신정부의 정책공약 이행과 배치되는 측면이 어떻게 조율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필요

- * IMF는 농업 분야의 보조금 축소, 손실 투성인 국영기업 민영화 또는 매각 등 PTI 정책기조와 배치되면서 과거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전망
- * (진출 포인트) IMF 구제금융 이후 ADB, World Bank 등 다자개발은행(MDB) 등으로부터의 자금 유입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적극 모색 필요

○ 루피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수출 중심의 거래에서 탈피, 현지기업과 기술제휴, 합작투자 등 다각적인 진출방식을 고려 필요(수출 중심 ⇒ 융복합)

- 달러를 보유한 우리 기업은 파키스탄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현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어, 대(對)파키스탄 수출이 유망한 우리 기업은 현지기업과 파트너십을 적극 검토할 시점
- * (유망 분야) 노후화된 생산설비 업그레이드, 자동차 부품 국산화 협력을 위한 기술제휴, 농식품 및 수산물 가공분야, 석유화학 및 비료 등 화학제품, 전자통신 기기 등

○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파키스탄을 수출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저렴한 인건비, 수출 진흥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확대 등의 기회요인을 활용, 현지 생산·가공 거점 마련 전략도 검토 가능
- * 사례 : (주)금양은 발포제 생산 공장을 카라치에 소재한 빈카심 SEZ에 건립 추진(2019년 8월) →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원가 절감 및 근거리를 활용한 중동·아프리카 시장 확대가 목적

2-4.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 다변화 지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CPEC 투자에 따른 도로 인프라 개선 및 건설 프로젝트 활성화로 자동차·상용차 수요 증가
 - * 세계 6위 인구(2억), 높은 젊은 층 인구비중, 인구 1,000명당 13대라는 낮은 자동차 보유율, 소비자의 일본 자동차의 시장독점 완화 요구 등으로 산업 재편 진행 중
- 자동차산업육성정책(ADP 2016-21)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현지 투자확대(시장경쟁 확대)
 - * 신모델 개발,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컬 기업과 외국기업 간 파트너십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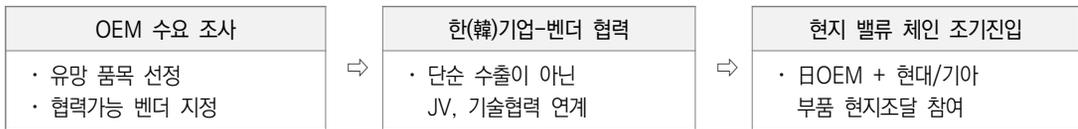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구 2억, 인프라 개선, 대형 프로젝트 지속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파키스탄 대표 제조업 중의 하나
 - 2018년 자동차 생산량은 25만 대에 불과해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율은 13대에 수준인바 시장성장 잠재력이 다대
 - * 파키스탄 GDP의 2.8%, 제조업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
 - 일본 브랜드(스즈키, 도요타, 혼다) 차량이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시장성장에 한계 노정
- 2019년부터 글로벌 완성차 투자 및 양산 본격화가 진행 중 →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시장 정상화
 - 자동차산업육성정책(ADP 2016-21)으로 유럽, 한국, 일본, 중국 등 14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조립공장이 운영·건설 중
 - * ADP 2016-21 정책으로 '21년까지 자동차 생산대수는 연간 5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
 - * 닛산, 현대, 기아, Changan, 폭스바겐, 벤츠 등 다양한 브랜드가 현지 진출 추진 중
 - 한국, 기아·현대자동차도 현지기업과 제휴, CKD 조립공장을 설립
 - * 기아력키자동차는 2019.7월부터 스포티지 양산시작, 10월부터 피칸토 양산예정
 - 일본, 스즈키, 혼다, 도요타도 신모델을 론칭, 품질 경쟁을 고조
 - * 신규 브랜드 차종이 정부의 인센티브로 가성비 좋은 차량을 출시하면서 품질향상을 위한 협력 벤더사의 기술력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한 상황
 - * 시장점유율 1위 PSMCL(스즈키)은 수십 년 만에 신모델 개발 출시(2019년 4월)
- 현지 부품업체는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생산역량 및 기술개선 추진
 - 규모(scale)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에서 파키스탄의 설비가동률*은 매우 저조
 - * 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M 기준, 인도 66%, 중국 90%, 파키스탄 43%
 - 이는 전체 부품의 40%를 차지하는 현지 부품기업의 취약한 경쟁력과 낮은 설비가동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World Bank, 2017)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신모델 개발, 부품 국산화, 제조역량 제고 등을 위한 파키스탄 자동차 완성차 OEM 및 벤더와 한국 부품기업 간 파트너십 수요 증가 활용
 - 자동차 부품업계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일본 및 한국 자동차의 부품 밸류 체인을 육성 및 진입 지원
 - * 일본 OEM 벤더의 설비 및 기술력 취약, 현대·기아차 재진출 확정 등의 기회요인 활용
 - 시장을 독점해 온 日OEM도 경쟁 확대에 대응, 기존 벤더의 한(韓)기업과의 협력 유도
- KOTRA 카라치무역관의 자동차 부품기업 진출지원 사업 활용
 - 한-파키스탄 오토파츠 콜라보 참가 및 지사화 사업 참가 등을 통해 완성차 OEM 및 부품협력사와 파트너십을 위한 최적의 1:1 상담 기회 확보
 - 수출은 물론 기술협력, JV 등 융복합 해외진출 성과 창출 유도

파키스탄 자동차 부품 진출지원 프로세스(카라치무역관)



「한-파 오토파츠 콜라보 2018-19」주요 성과

참기기업	현지파트너	주요 내용
M사	기아력키자동차	차량용 멀티미디어 및 에어컨 국산화 개발 MOU
	S사(라호르)	차량용 에어컨 국산화 개발 MOU
D사	M사(라호르)	파킹 브레이크 기술협력 및 부품 수출 MOU
J사	P사(카라치)	자동차 부품(시트) 프레스 금형제조 기술협력 MOU
S사	A사(카라치)	자동차 부품 프레스 금형제조 수출(1백만 불)
E사	A사(카라치)	자동차 부품 냉연간판 수출(30만 불)
I사	J사(카라치)	속옵서버 부품 개발 기술지원 협의 중
Y사	R사(라호르)	자동차 오일펌프 기술개발 프로젝트 협의 중
V사 등	P사(카라치)	폭스바겐 상용차 조립설비 수출 및 기술지원

한-파 자동차 산업협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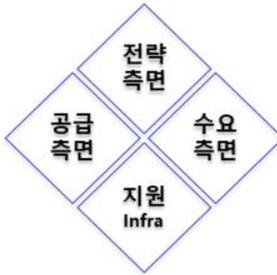
【환경 분석 : 파키스탄 자동차 산업 경쟁력 현황 분석】

- 현대-기아차도 자본투자 없이 진출 (핵심 부품수출, 기술지원에 집중)
- 대기업의 부품 기업지원에 한계

높은 자본투자 리스크,
현지 파트너 중요

- 현지 재벌기업은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 여력 충분
- 현지 부품협력사도 관계를 바탕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시장이 미성숙,
공급 우위의 저물량 시장



경제는 흔들려도
구매력은 튼튼

- 소비여력이 낮아 공급 중심의 구조
- 규모 경제가 중요한 산업에 물량이 작아 진출의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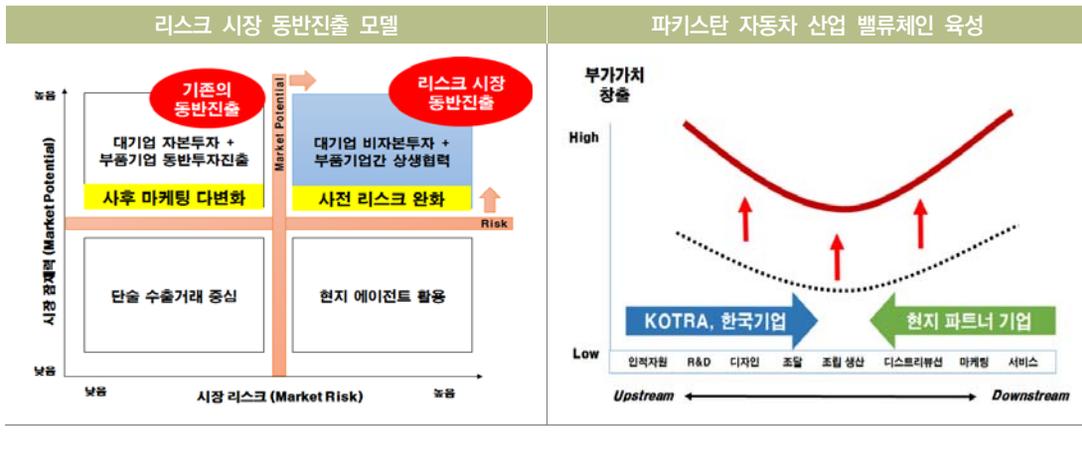
원자재, 설비, 인적자원 등
제조 기반 미약

- 제조 기반이 열악하여 우리 부품 기업 진출 시 높은 연관 산업 수출 효과 (예 : 철강, 금형, 테스트 장비 등)

【파키스탄 모델 : 자동차 부품기업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방향】

구분	기존 (既진출기업 마케팅 판로확대)	변형 (진출 리스크 완화형)
목적	▪ 기 투자진출 부품기업의 현지 마케팅 판로 다변화 지원 (사후적)	▪ 수요 풀링(Pooling)을 통한 사전 진출 리스크 완화 (물량문제 해소)
방식	▪ 수출 위주 상담	▪ 수출 + 기술협력 + 조인트 벤처
효과	▪ 단기 수출중심 ▪ 연관산업 수출효과 제한적	▪ 중장기 투자협력으로 연결 ▪ 원자재 및 설비 연관 수출

【(종합) 한(韓) 자동차 부품 기업의 파키스탄 진출의 상생 효과】



2-5. 산업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10차 한-파 정책협의회(2018.11월)에서 외교부는 파키스탄을 개발협력 분야 신남방 중점파트너 국가로 지정
→ 파키스탄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대외원조를 통한 개혁 추진 불가피
- 경제성장이 실물경제(downstream)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
 - * 6대 개혁정책 방향 중의 하나인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세부 과제에 있어 투자유치 환경개선, 전통 제조업 수출증진 등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강조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은 경제성장의 걸림돌
 - 경제성장의 효과가 실물경제(downstream)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
 - * 파키스탄에서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3.2백만), GDP의 40%를 차지
 - 그러나 파키스탄 중소기업은 낮은 품질, 표준 및 규격 부재, 장비 노후화, 원자재 부족, 인적 자원 역량 미흡 등으로 성장에 애로
- 고용창출과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로컬 및 글로벌 밸류 체인(GVC) 진입은 로컬 및 해외 대기업의 지원과 협력 하에 가능
 - 파키스탄 정부는 자동차 산업 등 한국경제의 글로벌 성장과정에서 국내외 대기업과 한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 사례 벤치마킹 희망
 - * 기아·현대차 조립공장이 각각 2019년 7월, 2020년 상반기부터 가동, 자동차 부문에서의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확대 유망
- CPEC을 추진 중인 중국도 인프라 투자위주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산업간 협력을 중시하는 CPEC 2단계로 2019년부터 진입
 - * World Bank도 총 620억 달러에 달하는 CPEC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좌우할 것으로 평가
 - 아울러 미·중 갈등을 우회할 위해 파키스탄을 대체 생산기지로 육성
 - * 파키스탄 섬유기업 대상 기술이전, 합작투자로 대미(對美) 의류수출 활로 모색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산업분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현 정부는 자동차, IT, 가전, 식품가공, 가죽, 어업, 광물 산업 등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 한국의 대-중소기업 협력 경험 공유에서 더 나아가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 체인(GVC)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산업무역투자 KSP 정책자문 추진 가능(잠정)
 -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 시스템, 관련 제도 및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양국 간 B2B 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 * 고용창출과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로컬 밸류 체인 및 GVC 진입은 로컬 및 해외 대기업의 지원과 협력 하에 가능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 체인(GVC) 참여 확대 지원 KSP(잠정)

○ (주요 내용) 정책자문 배경 및 세부 내용

- 파키스탄 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청(SMEDA)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GVC 진입 확대를 위한 정책 자문과 양국 기업 간의 협력방안 마련 제안
- 정책자문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 투자협력,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양국 간 B2B 협력 방안이 논의 필요
- 파키스탄 중소기업이 현지 대기업은 물론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내수는 물론 글로벌 납품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바, 양국 기업 간의 기술협력 세미나, 인증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연계 가능

KSP 2020/21 세부 제안과제 (잠정)	
주제1	• 대-중소기업 주요협력 분야별 심층정보 수집
주제2	• 한국의 대-중소기업 협력(하청) 관계 구축 경험 공유
주제3	• 공공/민간차원의 대-중소 협력지원 프로그램, 관련 제도 및 이해관계자 분석
주제4	• 중소기업과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통해 성장한 한국 대기업 사례 심층 조사(직접 면담 및 인터뷰)
주제5	• 대-중소 협력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경험과 효용성

* 잠정(안)으로 향후 양국 간 세부 협의를 거쳐 변동 가능

○ (추진 효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 다변화 기회 제공

- 파키스탄은 해외기업의 단독투자 리스크가 높고 만성적 무역적자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파키스탄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 → 이는 현지 중소기업과 산업역량을 키우는 효과로 연결
- KSP를 통해 기업 진출에 유리하게 정책방향을 재설계하고,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 마련 가능
- 현대·기아차 본격 양산(2019년 하반기~) 시 부품 현지화를 위한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지 부품기업과 협력투자 확대를 위한 좋은 디딤돌로 작용 가능
- KSP 사업을 통해 우리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중소기업 협력 및 동반성장, 산업발전 등에 대한 경험 공유는 물론, 현지 정부가 육성하는 주요 산업별 해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 도출함(K패키지 연계사업)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및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3 한-파키스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한-파키스탄 FTA 추진을 위한 협의 지속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파키스탄 FTA가 체결될 경우 현지 시장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는 교역 확대에 윈윈(win-win) 기여 가능
- 2019년에 타결된 중국-파키스탄 FTA 2단계(CPFTA-II) 협상이 본격 발효될 경우, 우리기업의 진출입지가 더욱 악화 우려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9년 중국-파키스탄 FTA 2단계 협상 타결 등 선별적 FTA 추진
 - 중국과의 FTA 2단계 협상은 타결되어 최종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터키, 태국과의 FTA는 무역적자 심화와 피해 예상 업계의 반발로 표류 중
 - IMF 구제개혁 진행 과정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무역자유화 노력이 확대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 배제 불가
 - 이 경우 현지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우려 존재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수혜 예상품목 발굴 및 활용
 - 양국 간 산업구조 차이로 민감 품목이 없는 상황으로 FTA 효과 극대화 기대
 - * 한국의 대(對)파키스탄 주요 교역품목을 분석하면, 10대 수출·수입 품목의 중복이 전무한데, 파키스탄의 경우 면직물, 광물 등을 주로 한국에 수출하는 반면, 한국은 합성수지, 윤활유, 중장비 등이 대(對)파키스탄 주요 수출품목으로 분류됨
 - 철강, 석유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수혜품목의 수출 확대 예상
 - * 가격민감도가 높은 개도국 시장 특성상 FTA 관세인하에 따른 소폭의 가격변동에도 파키스탄 소비자들은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
- 한-파키스탄 FTA에 대한 현지 업계의 반발 최소화
 - 단순수출 중심이 아닌 현지기업과의 기술 제휴, 합작투자 등 현지기업과 네트워크 및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FTA 협상의 조기 협상개시 지원
 - 자동차 부품, 화학(PVC 파이프 등) 분야와 같이 현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에서 우리기업과 현지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확대 추진

3-2. 산업투자 KSP 추진을 통한 기업의 진출확대 기반 조성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파키스탄 정부는 IMF 경제위기 속에 만성적 쌍둥이 적자, 대외부채 부담, 외환보유고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추진
- 이러한 중점 정책분야에서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신뢰관계 강화
 - *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을 지원하면서 기업 간 협력기회로 확대 가능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파키스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변화 주목
 - 2019년부터는 기존의 중-과 경제회랑 중심의 인프라 투자 치중이 아닌, 산업육성·수출증진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활성화를 병행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 개선, SEZ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공유 가능
 - 2019년 파키스탄의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세계은행)가 전년 대비 11단계 상승한 139위를 기록, 2020년에는 추가로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
 - * 복잡하고 느렸던 정부의 각종 행정절차와 투자기업을 위한 전력 및 가스 연결 기간도 대폭 단축
- 파키스탄 GDP의 40%,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절실
 - 그러나 파키스탄 중소기업은 낮은 품질, 표준 및 규격 부재, 장비 노후화, 원자재 부족, 인적 자원 역량 미흡 등으로 성장에 애로
 - CPEC을 추진 중인 중국도 인프라 투자우주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기업 및 산업 간 협력을 중시하는 CPEC 2단계로 2019년부터 진입
 - * 미·중 갈등을 우회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대체 생산기지로 육성 : 파키스탄 섬유기업 대상 기술이전, 합작 투자로 대미(對美) 의류수출 활로 모색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 역량강화 방안 KSP(제안 검토)
 - BOI 조직의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및 제도 개선 컨설팅 및 워크숍 제공
 - 특별경제구역(SEZ)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경험 전수
-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 체인(GVC) 참여 확대 지원 KSP
 - 고용창출과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로컬 및 글로벌 밸류 체인(GVC) 진입은 로컬 및 해외 대기업의 지원과 협력 하에 가능

- 파키스탄 정부는 자동차 산업 등 한국경제의 글로벌 성장과정에서 국내외 대기업과 한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 사례 벤치마킹 희망
- 정책자문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 투자협력,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양국 간 B2B 협력 방안이 논의 필요

파키스탄의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글로벌 개발협력 사례」

- 파키스탄 중소기업청(SMEDA)은 일본 JICA 및 파키스탄 자동차 부품협회(PAAPAM)와 공조, 2000년대 초부터 자동차 부품기업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
 - (내용) 퇴직 기술자를 현지 부품기업에 파견, 기술컨설팅을 시행(20여개의 기업 대상)
 - (평가) 시장의 98%를 독점하고 있는 일본자동차의 입지를 공고화하는데 기여
 - (성공사례) 용접, 금형, 도장, 레이아웃 등의 분야에서 기술향상과 공정 프로젝트 개선이 진행 중이며, 일부 연료 탱크 제조 기업은 베트남 스키 공장으로 수출하는 성과 창출
- SMEDA-UNIDO SPX Programme (2016-17)
 - SPX Program*은 UNIDO가 개도국 기업이 자국 대기업 또는 외국의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Sub-Contracting and Partnership Exchange (SPX) Program)
 - 기술향상, 공급체인 참여, JV 설립, 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PX Centre를 파키스탄 전역에 30여 개를 설치, 현재 운영 중

3-3. 농업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1촌1사(1村1社) 시범사업 추진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파키스탄의 농축수산업은 GDP의 약 20%, 전체 고용의 40%를 차지
 - 농업이 GDP의 7%, 축산업이 11%, 임업과 수산업이 각각 0.4%의 비중을 차지
-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서 개발협력 프로젝트 확대 필요
 - (농업) 수자원 부족으로 작황의 변동이 크며 밀, 쌀, 면화, 사탕수수 등이 주요 재배작물임
 - (축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축 사료 및 동물용 영양제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9년 7월, 파키스탄 정부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긴급농업육성프로그램 발표
 - 작황 개선을 위한 5개 분야 16개 프로젝트 예산 투입 3.6배 증가
 - * 수자원 보호 및 물 공급 증대, 작황개선 및 종자생산 증대, 축산농가 지원 등의 내용 포함
 - 세계은행의 회원기관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도 2017년 9월 상무부 장관 면담 시, 농업은 핵심 투자 분야 중의 하나임을 강조
- 지속적인 환율 상승세로 현지 식품기업의 농작물 원자재 수입 부담 증가
 - IMF는 2022/23 회계연도까지 달러 대비 루피화 환율이 20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 업계의 원자재 수입 부담은 가중 전망

- 특히 식품가공 업계는 현지 농가 육성을 통한 원자재 국내조달 확대가 필요
- 재원과 기술부족으로 국제 원조를 통한 농가 육성이 불가피한 상황
 - * 파키스탄 대표 식품기업인 롯데콜슨은 현지 감자 작황 개선을 통한 수입부담 경감을 희망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농가육성을 위한 파키스탄형 OVOP*[1촌1사(1村1社)] 사업 개발

- * One Village One Product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OVOP 마을과 후원결연을 통해 제품가치 제고, 판로 개척 등 현지주민 자립기반 구축 지원 → 현금제공 금지, 3년만 지원, 조건부 지원(물고기 낚는 법 전수에 주력)의 후원 3원칙 준수
- * KOTRA의 특색을 살리고 단순원조와는 차별화된 '비즈니스+국제공헌 복합형'으로 추진

제 3국의 OVOP 지원 사례

- 2008년부터 일본 JETRO가 족(族)자카르타, 발리, 서부 누사 툽가라, 서부 수마트라, 북부 술라웨시 OVOP 제품 대상 가공기술 전수, 품질 향상, 일본 내 전시회 참가 지원 중
- 2010년부터 대만 TTM(Taiwan Technical Mission)이 발리섬의 바둥군(郡)과 발리군(郡)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채소·과일 재배, 가공, 판매지원 프로젝트 추진
 - * 아스파라거스, 체리토마토, 가지, 오렌지, 로즈애플 등

- (방식) 현지진출 기업이 파키스탄 OVOP 마을 간 후원협약을 추진
 - * OVOP 품목 생산 및 판매는 마을단위 지역주민 협동조합이 담당
- (내용) 후원기업 여건, OVOP 제품 종류 및 상품성에 따라 지원내용은 마을별로 다르게 맞춤형 적용
 - * ① 「잘 팔리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장비도입, 공정개선, 포장재, 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현물 지원 ② 유관 업종일 경우 제품구매, 생산 노하우 전수, 판매 지원도 가능
- (CSV) 후원기업에게는 OVOP 제품 포장에 스폰서 로고 게재, 언론 홍보 등 반대급부 제공
- 2020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기업-유관기관 OVOP 지원 플랫폼 구축
 - (한국) 대사관, KOTRA, KOICA, 농진청, 후원기업(대기업 L사) 등으로 구성된 '파키스탄 OVOP 지원단' 구성 검토
 - * 자금, 경험전수 : KOICA ODA, 수출입은행 EDCF, KSP ↔ 사업수행 : KOTRA(잠정)
 - *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활용 : CSR 활동 관련 재원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KOICA와 co-funding하여 개발도상국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ODA 사업
 - (파키스탄) 연방 및 주정부 담당부서, 농업전문대학 및 연구소, 협동조합, 현지 유통기업 등

파키스탄 OVOP 시범사업(안)

- (사업명) 파키스탄 감자 품종개량 및 작황 개선을 위한 OVOP 농장 육성사업
- (후원마을) 라호르 인근 감자 농장 / (기간) 2020년부터 3-5년간
- (후원기업) 대기업 L사 (식품제조)
- (한국 지원기관) 대사관, KOTRA, KOICA, 농진청(KOPIA) 등
- (현지 유관기관) Ministry of National Food Security & Research(식량안보연구부), 협동조합, 농업연구대학 및 연구소, 현지 유통기업, 현지 금융기관 등
- (사업내용)
 - 종자개선 및 품종개량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전문 노하우 지원
 - 작황개선에 필요한 장비도입, 수확개선,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현물 지원
 - 후원기업(대기업 L사 등)은 OVOP 제품의 구매 및 유통 지원(언론 홍보 포함)
 - 작황 여력에 따라 제 3국 수출 및 내수 판매 확대 지원 등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	비효율적인 행정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높은 수입관세 및 세금회피를 위한 신용장에 대한 언더벨류 관행을 요구한 후 T/T로 잔금 송금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대금 중의 일부만 신용장으로 처리 후, 나머지는 두바이 등 제3국 은행을 통해 T/T로 송금하는 관행 - 언더벨류는 정부의 탈세 규제 대상으로, 대금지급 의무 불이행 시 피해기업의 공식적인 대응에 애로 ▪ (대응전략) 언더벨류 거래 자체, 신용장 거래 중심 추진, 필요 시 T/T 송금을 우선 확인 후 제품 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법인세 환급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진출기업의 경영 계획에 차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환급 지연으로 재무손실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프로젝트 참여 시 등 애로 - 공장설립 등 투자진출 시 행정절차가 늦는 경우가 많아 업무일정 지연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 부지배정 및 구매계약 지연 ▪ (대응전략)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출계획을 세우고, 공관(무역관)과 공조를 통한 정부인사 설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관에서 주최하는 진출기업협의회 등의 채널 등을 활용 가능
만성적 경제불안 리스크	불법체류를 위한 접근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재정 및 무역적자 누적으로 2019.7월 80년 이후 13번째 IMF 구제 금융 수혜 (6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보유고 고갈 등에 따른 현저화 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 시장 경색 - IMF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부지출 축소로 각종 프로젝트 자금집행 지연 ▪ (대응전략) 단순 수출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JV, 기술 지원 등) 형태의 진출 모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분야와 같은 틈새시장 진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한국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위장 수입업자·브로커 기업이 한국 기업에 거래를 제약하는 경우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제품을 최종 확인한 후, 계약하겠다고 제의하면서 비자 추천서를 요청 - 최근에는 과거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도 직원이 아닌 사람을 출장 보내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존재 ▪ (대응전략) 사전 바이어 검증 철저, 무역관을 활용해 비자 추천서를 요청한 바이어의 신뢰성 검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C,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
신변안전에 대한 각별한 유의	비즈니스 관행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정치·종교·분리주의·반중 감정 등으로 테러, 권총 강도, 살인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 필요 (위생·건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철수 권고 지역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2.5일부로 특별여행경보 지역이었던 발루치스탄 주는 여행경보 등급을 철수권고 지역으로 완화 - 최근 반중 감정에 따른 중국인 대상 테러 빈도가 증가되어 외모가 비슷한 한국인의 신변안전까지 위협 ▪ (대응전략) 공관과 무역관의 신변 안전 안내 숙지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인이 밀집한 지역 및 중국 관련 시설물 등 방문을 자제 하고, 불필요한 외출 시간을 최소화 -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사설 무장가드 고용 등 신변 안전 조치 철저 - 아울러 물과 식품의 위생이 좋지 않아 섭취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종교·역사·상관행 등을 이해하고 신중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테러의 대상이 되거나 무역 사기를 당할 우려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97%가 무슬림인 시장 -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빈번 - 다품종 소량 주문시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관건인 시장 -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에도 지속적인 결제대금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빈번 ▪ (대응전략) 사회경제적 상관행에 저해되지 않기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에 관한 논쟁과 농담은 삼가 -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인도를 찬미하는 발언 등은 주의 필요 - 파키스탄 비즈니스맨은 커미션베이스 수입업자로 시작, 점차 전문화되고 특정 품목의 수입업으로 성장하므로, 장기적인 신뢰 관계 구축이 중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7209.1690	수입관세율(%)	11
	수입액('18/US\$백만)	54.04	대한수입액('18/US\$백만)	10.54
철강 (Steel Sheet) * 가장 수입비중이 높은(26%) Coil IR/NA-S TH 1-3mmMT 기준	선정사유	파키스탄에는 철강 제조 기업이 2개에 불과하며 산업 부문은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정부의 제조업 육성 노력에 힘입어 철강 수입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		
	시장동향	2017/2018 회계연도 전체 수입규모는 5,404만 달러이며, 한국 제품의 수입 규모는 1,054만 달러였고,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가전 제조기업 등이 주요 수요처		
	경쟁동향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여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 제품에 비해 선호도가 높음		
	진출방안	대기업은 현지 수입상이나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소기업의 수요처는 직접 수입하기도 하므로, 에이전트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해 KOTRA 카라치무역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품목명 2	HS Code	2710.1993	수입관세율(%)	11
	수입액('18/US\$백만)	124.48	대한수입액('18/US\$백만)	24.34
베이스 오일 (Base Oil)	선정사유	윤활유는 우리의 대표적인 대(對)파키스탄 수출품목이나 최근에는 완제품이 아닌 베이스 오일 형태로 수입을 해 현지 사용목적에 따라 혼합(blending)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		
	시장동향	베이스 오일 시장 전체규모는 연간 약 4억 리터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17/2018 회계연도 전체 수입규모는 1억 2,448만 달러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434만 달러		
	경쟁동향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 이태리, UAE 순		
	진출방안	윤활유 혼합(blending)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발굴, 현지화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품목명 3	HS Code	8429.5900	수입관세율(%)	3
	수입액('18/US\$백만)	125.27	대한수입액('18/US\$백만)	50.399
건설중장비 (Mechanical Shovels & Excavator)	선정사유	발전·주택·상업 건설경기는 IMF 구조개혁으로 다소 침체되었으나, 신정부의 주택 5백만 호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건설 중장비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굴삭기는 건설중장비 수입의 58%, 한국의 건설중장비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		
	시장동향	전체 수입시장의 90%가 중고장비로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됨. 2017/2018 회계연도 전체 수입규모는 1억 257만 달러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전년 대비 유사한 수입규모를 유지했고, 동 회계연도의 한국제품의 수입규모는 5,039만 달러		
	경쟁동향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2위는 일본 제품이고, 중국, EU, USA 등의 제품도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장을 한국 및 일본산이 점유		
	진출방안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으로서 파키스탄 전역에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케팅 방법임		

품목명 4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35
	수입액('18/US\$백만)	114.66	대한수입액('18/US\$백만)	6.11
자동차 부품 (Autoparts)	선정사유	정부의 자동차산업육성정책(ADP 2016-21)으로 글로벌 및 로컬 완성차 브랜드의 조립제조 공장이 확대되고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일본 자동차 브랜드도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품 업그레이드에 관심이 많음. 현지 부품 기업들의 낮은 생산성과 기술력으로 해외기업과의 기술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시장동향	2017/2018 회계연도 전체 수입규모는 1억 1,466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제품의 수입규모는 611만 달러였음. IMF 구조개혁으로 소비시장이 침체되고 신차 구입을 연기하면서 반사적으로 애프터 마켓 부품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		
	경쟁동향	일본 부품이 시장을 지배해 왔으나, 점차 일본 외에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이 시장이 진입하면서 가성비도 좋으며 다양한 제품에 공급이 가능한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2019년부터 기아 및 현대 자동차의 현지 판매가 시작되면서 우리 부품기업의 진출 기회는 지속 증가할 전망		
	진출방안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전문 수입상과 현지 완성차 OEM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OEM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현지 부품기업과의 제조기술 협력을 통해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		
품목명 5	HS Code	2808.0010	수입관세율(%)	3%
	수입액('18/US\$백만)	1.17	대한수입액('18/US\$백만)	0.81
질산 (Nitric Acid)	선정사유	파키스탄에서 질산은 주로 농업용 비료 생산을 위한 질산암모늄 합성에 사용되며, 그 외에도 의약, 염료, 살충제, 전기 도금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됨. 합성섬유 및 제약 산업, 기계 용접 등의 분야에서는 최소 90% 이상의 고훈도 질산이 요구되며, 이 경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 중		
	시장동향	2017/2018 회계연도 전체 수입규모는 117만 달러로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나 전년 대비 25% 증가세, 2017/18 회계연도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1만 달러로 전체시장의 67%를 한국산이 차지		
	경쟁동향	품질을 앞세운 한국제품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제품이 2위이나, 최근 카슈미르 갈등 고조로 파키스탄-인도 간의 교역이 감소해 한국제품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여지가 존재		
	진출방안	최종 수요처(화학제조기업 등)가 직접 수입해서 보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에이전트나 수입업자가 재고를 보유하면서 최종 수요처에게 공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넓은 판매망을 보유한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초기 소규모 계약을 통해 자사 품질에 대해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초 화학 원료의 특성상 바이어들은 구입 전에 순도 등 품질 확인을 희망하므로 사전에 소형 샘플을 준비해 무상 제공하는 것도 방법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서비스명1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만성적인 의료시설 및 병원 운영 역량 부족
	시장동향	2016년 이란 정부가 130병상 규모의 병원을 파키스탄에 기증한 바 있으며, 국제기구 등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경쟁동향	인력의 해외유출로 의료서비스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
	진출방안	병원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서비스 역량이 부족하며, 병원 운영서비스·컨설팅 분야, 병원 신축공사 사업관리 및 엔지니어링 용역 서비스 유망(현지 정부인사와 네트워크 구축 중요)
서비스명2		
건설 서비스	선정사유	CPEC(에너지, 인프라 등) 및 국제기구 지원 프로젝트 지속 등으로 파키스탄 건설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시장동향	발전 프로젝트의 O&M 서비스는 물론, 신정부의 핵심 공약인 저소득층 5백만 호 주택공급 등이 본격화될 경우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제휴가 늘어날 전망
	경쟁동향	가격중심의 시장이어서 중국업체들이 현지 건설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기술과 디자인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참여기회 존재
	진출방안	발전 프로젝트의 O&M 서비스 진출 등은 여전히 유망하며, 주택 및 상업단지 개발 설계 및 감리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진출기회가 집중 확대될 전망
서비스명3		
온라인 쇼핑 플랫폼	선정사유	인터넷 여건 개선 등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시장동향	소형화 및 분절화 ⇒ 대형화 및 통합화 추세
	경쟁동향	10개 내외의 현지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었으나, 2018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파키스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Daraz.pk를 인수하고 자체 물류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중
	진출방안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진입이 바람직
서비스명4		
자동차부품 기술수출	선정사유	현대·기아자동차의 재진출로 시장경쟁이 확대되면서 현지 부품기업은 품질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기술제휴 수요 증가
	시장동향	일본 브랜드 차량의 품질개선, 신규 글로벌 브랜드 차량의 부품 국산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기술지도·로열티 협약이 증가세
	경쟁동향	중국기업의 현지기업과의 기술협력 사례도 늘고 있으나, 다양한 브랜드 제품에 공급이 가능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아·현대차 납품 가능성을 감안해서 한국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높음
	진출방안	완성차 OEM의 기술개발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현지 유력 부품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KOTRA 지사화 서비스 활용
서비스명5		
할랄음식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인구 2억 중 50%가 25세 미만으로 새로운 식문화에 개방적이며 음식을 가족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지배적(BBQ 선호도 높음)
	시장동향	한식 프랜차이즈의 파키스탄 진출사례는 없으나, 카라치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식, 중식, 태국식 등의 퓨전 식당이 존재
	경쟁동향	피자헛, KFC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함께 시나본, 던킨도너츠 등 카페 프랜차이즈도 현지 주요 빌딩 내 입점한 상황이며, 최근 PF Chang(퓨전 중식) 프랜차이즈도 진출을 준비 중
	진출방안	할랄 문화권에 기 진출한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외식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 가능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정부의 경제혁신 방향에 부응한 사업기회 개발	파키스탄 건설기계/건축자재 시장진출 로드쇼	2분기/ 카라치 및 라호르
2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진출 기회 다변화 지원	한-파키스탄 오토파트 콜라보(K-PAC) 2020	3분기/ 라호르
3	산업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한-파키스탄 비즈니스 파트너십 2020	3분기/ 카라치
4	산업투자 KSP 추진을 통한 기업의 진출확대 기반 조성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체인 (GVC) 참여 확대 지원 KSP	연중
5	농업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1촌1사 (1村1社) 시범사업 개발	감자 농가 육성을 위한 파키스탄형 OVOP 사업 추진	연중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	연중	분기별 이행 평가
중국-파키스탄 FTA 2단계 협상 발효	연내	2019년 협상 타결 2020년 발효 전망
파키스탄-인도네시아 PTA 협상 추진	연내	2020년 추진 전망

유망 전시회 캘린더

전시회명	일시	비고
PAPS 2020 (Pakistan Auto Show 2020)	2020.2월	라호르 엑스포 센터 (자동차 및 부품)
Textile Asia 2020	2020.3월	카라치 엑스포 센터 (섬유)
ITIF Asia 2020 (International Trade & Industrial Machinery Fair 2020)	2020.3월	카라치 엑스포 센터 (산업기계)
Health Asia 2020	2020.4월	라호르 엑스포 센터 (의료기기 등)
IEEEP Fair 2020 (Industrial Electrical Electronics Exhibition of Pakistan 2020)	2020.8월	카라치 엑스포 센터 (전기전자)
Plastic Packaging & Print Asia 2020	2020.9월	카라치 엑스포 센터 (포장 및 인쇄)
IDEAS 2020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and Seminar 2020)	2020.11월	카라치 엑스포 센터 (방위산업)
Build Asia 2020	2020.12월	카라치 엑스포 센터 (건설 및 건축자재)

I. 한-파키스탄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파키스탄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현황

 파키스탄의 잠재력

- 인구 2억(세계 6위)의 서남아 제2의 거대 잠재시장
 - * 한반도의 3배가 넘는 국토면적, 석탄·구리 등 천연자원 풍부, 높은 청년층 인구 비중
- 중동·중아시아·동남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
 - *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이슬람 문화와 지리적 인접성 기반의 연결고리 존재
- 2018년 8월, 부패척결의 열망을 안고 개혁성향의 제2야당이었던 임란 칸의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이 정권교체
 - * 부패척결, 투명한 세수정책, 수출확대, 산업협력,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 환경 개선(Doing Business Index) 등을 추진
- 저임금, 거대 내수시장 기반으로 경제규모 성장 잠재력 다대
 - * '17년 PWC는 파키스탄 경제규모가 '30까지 20위, '50년에는 16위로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

 주요국의 대(對)파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 파키스탄 시장의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파키스탄과 협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실정

주요국의 대(對)파키스탄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으로 총 6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진행('14년~) * 에너지, 인프라, 산업협력(SEZ 개발 등)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 인-미간 전략적 협력, 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파키스탄 지지 등으로 협력관계 공고화 • '07년 중-파키스탄 FTA 발효 이후, 2019년 2단계 추가 자유화 협상까지 완료 • 알리바바, 자동차 주요 완성차 기업(Changan, FAW 등)의 현지 투자 확대 중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 • 파-중간의 관계 강화를 경계하나, 2019년 7월 6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금융이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양국 관계는 점차 개선 중 * 2019년 임란 칸 총리의 방미로 중단된 군사지원 협력이 부분적으로 재개 • 2018/19 회계연도의 미국 내 파키스탄 국민으로부터의 송금(Remittance)은 30억 달러로 전체의 13%

사우디 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는 전통적인 우방국, 이란 견제를 위해 파키스탄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 외환위기에 직면한 파키스탄에 대해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 합의('18년) * 과다르항의 석유화학단지, 발루치스탄주 광물개발, RLNG 공장, 식품/농업개발 투자 등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0억 규모의 재정지원/석유수입대금 지불연기 등의 원조를 함의 • 10억 불 규모의 아부다비의 과다르 항 석유저장소 및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 프로젝트 감안 시, 총 재정지원 규모는 70불에 달함 • 부동산, 유통(카르푸 등) 분야에서의 대(對)파키스탄 투자 지속 확대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최초의 포괄적 FTA 협정 * '08.1.1일 발효, 상품교역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IPR 보호, 건설/관광/의료/통신 협력 포괄 • '19.3월 말레이시아 총리의 파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경제협력 강화 • 자동차, 통신, 식품, 스타트업 등 4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MOU 체결 * 알하즈그룸-프로토타입 자동차 조립생산, 말레이시아 Edoco사의 2.5억 불 규모의 통신망 효율화 투자, Fauji Foundation사의 대(對)말레이시아 할랄육류(halal meat) 수출 확대 및 식품가공 제조협력, 말레이시아 벤처 캐피탈의 2천만 달러 스타트업 지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자동차(상용차 및 이륜차 포함) 시장의 95% 이상을 일본 자동차 기업이 장악 • 파키스탄 산업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Capacity Building) 지원 원조를 지속 강화 중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연내 타결이 유력했던 파키스탄-태국 FTA 협상에 파키스탄의 무역적자 심화로 타결에 난항 중 ('15.9월부터 총 8차례의 협상 진행) • 두바이와 더불어 파키스탄 주요도시와 직항 항공편이 확보되어 있는 국가

파키스탄 경험과 연계된 서남아 시장의 변화와 기회

- ◆ 인도-파키스탄, 미·중 갈등 우회를 위한 인도 서쪽 지역의 새로운 제조업 및 무역투자 거점으로서의 파키스탄에 대한 관심 증가
- ◆ 서남아 히든 대안시장(India+)으로서 인구 2억 파키스탄 시장 잠재력 다대

 <p>대체 생산수출 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갈등을 우회할 수 있는 대체 생산·수출기지로서의 위상 부각 * CPEC 2단계(2019년~) : 수출진흥·산업육성 ⇄ 특별경제구역(SEZ) 활성화 • Make in Pakistan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부의 지원 확대 • 공공 및 민관협력 프로젝트 지속 확대, 제조업 육성과 산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산업협력 기회는 지속적으로 증가 • 유럽, 중동, 북미 물류 및 수출거점으로서 카라치항의 이점 부각
 <p>내수시장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방글라데시는 인도와 구분되는 인구 4억의 이슬람 문화권 * 중동 전체의 인구(4.3억)와 유사한 규모의 거대 시장임 • 2014년 이래 서남아 지역 8개국의 평균 성장률은 연평균 7%를 기록(ADB) * 동아시아 6.2%, 동남아시아 4.9% 등과 비교해 높은 성장률 시현 • 35세 미만의 젊은층 인구가 전체인구의 64%(UNDP)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2021 연평균 유통시장 성장률(8.4%)이 가장 높은 국가(Euromonitor International) * 중국산 품질에 대한 불만 증가 가성비가 좋은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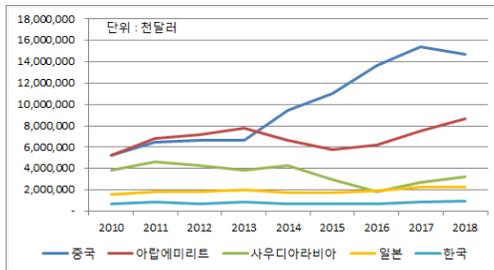
- ✓ 파키스탄의 전략적 위상을 활용한 비즈니스 루트 재편 수요 증가
 - 미·중 및 인·파 갈등으로 교역 루트 재편을 위한 물류·생산거점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관심 확대
 - 낮은 인건비와 물류비(outbound)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활용도 증가
- ✓ 수출증대 및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해외기업과의 협력 수요 증대
 - 수출산업 육성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 중소기업 육성과 GVC 진출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JV, 기술지원 분야의 민관협력 기회 다대

한-파키스탄, 국제정세의 역동성으로 경제협력은 미흡한 수준

- 1983년 11월, 양국 간 정식 외교관계 수립
- 수교 이래 대통령과 총리 등 정상급 인사 7회 방한, 2005년 반기문 외교장관과 2014년과 2017년 2차례의 국회의장 파키스탄 방문
- 2017년 1월 한-파 FTA 공동 타당성 조사 완료*, 2015년부터 격년마다 한-파 무역투자공동위 개최 등 양국 간 통상·경제협력 활동 진행
 - *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로 쟁점 요소가 적어 FTA 시 양국 교역 확대 가능성 높음
- 2019년 8월 라자 다우드 상무장관의 방한(산업부 장관 면담) 시 경제혁신*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논의(2019년 10월 실무후속협의 추진)
 - * 2018.8월 수립된 신정부는 IMF 구제금융('80년 이후 13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탈피, 주력산업 육성, 수출 진흥, 투자유치 등을 통한 자립형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 한-파 FTA Early Harvest 제안(20-30개 품목 우선 무역 자유화),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독려(각종 무관세 혜택 제공), 특별경제구역 제공 등을 논의
- 거대시장임에도 테러와 치안문제, 비(非) 일관적인 경제·산업정책, 루피화 고평가에 따른 높은 수입의존도 등으로 한(韓)기업의 현지진출 미흡
 - * 한국의 대(對)파키스탄 수출시장 점유율은 1.5%로 일본 3.0%, 중국 20%에 비해 미미한 수준

한국-파키스탄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파키스탄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자료 : Global Trade Atlas)



- '18년 파키스탄의 주요국 수입액은 중국으로부터 약 147억 불, 아랍에미리트 86억 불, 사우디아라비아 32억 불 규모
- '17-'18년도 증감율로 비교 시, 중국 -4.8%, 아랍에미리트 14.4%, 사우디아라비아 18.4%임
- '18년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는 각각 10억 불, 23억 불 수입하였으며 증감률은 차례대로 11.0%, -0.7%임

2. 대(對)파키스탄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기준) (자료 : Global Trade Atlas)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플라스틱 제품	기계 및 부품	철강	연료 및 오일	선박류
중국	전자기기	기계 및 부품	철강	유기화학 제품	화학비료
일본	수송기기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철강	의료기기	전자기기

- (수출경합도) 대(對)파키스탄 수출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4개 품목, 한국과 일본은 5개 품목이 겹침

3. 대(對)파키스탄 투자진출 현황(2018/19 회계연도 기준) (자료 : 파키스탄 중앙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순위	국가	비중
1	중국	31.5%
2	영국	10.7%
3	홍콩	7.5%
4	일본	6.8%
5	아랍에미리트	5.9%
6	미국	5.1%
7	터키	4.2%
8	네덜란드	3.9%
9	이탈리아	3.0%
10	스위스	1.2%

- '18년 한국의 대(對)파키스탄 직접투자액 약 7,500만 달러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 (자료 : 수출입은행)
- 진출기업 수 : 한국 23개사('18) VS 일본 83개사('18)
- 전체 투자 비중은 건설업(20.6%)이 가장 높으며, 에너지 산업(15.1%), 금융 서비스업(14.0%) 순

나. 한-파키스탄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파키스탄은 부패척결,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 거시경제 안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경제 개혁정책을 추진

→ IMF 구제금융으로 당분간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나 새로운 파키스탄 건설(Naya Pakistan)을 위한 경제개혁 의지는 지속

* 다양한 국가와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구사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

파키스탄의 협력 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식품 및 가공	◆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완화 - 수출산업육성, 투자유치 등
농축수산업	기계장비	◆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신재생에너지, 교통 등 분야, PPP
전기전자, 가전	보건의료	◆ ICT 인프라 개선, SW 산업 육성
화학	에너지/인프라	◆ 장기발전을 위한 파키스탄 혁신역량 강화 - 기술, 인력 개발 및 산업 발전 ◆ 제조역량 공유(투자유치-수출연계)

파키스탄의 권역별 협력 수요

권역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경제협력 2단계 진입 (산업협력, 기술이전 및 SEZ 개발 등의 비즈니스 활성화) •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 협력 지속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의 가교로서의 파키스탄의 역할기대 • 파키스탄의 무역 흑자국으로서 GSP(섬유·가죽) 적용 확대 * 농산물, 식품가공, IT 아웃소싱 분야에서의 미국의 투자 희망 • 미국은 농산물 수출과 가스·석유·전력 분야 투자에 관심
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카타르, UAE로부터의 민간투자 유입 기대 * IMF 구제금융에 대한 의존도 탈피, 지역 내 협력 강화 • 파키스탄 노동자의 본국 송금(Remittance)의 중요성 다대
아시아 및 기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주요 3개국인 중국, 일본, 한국과의 교역 강화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문화권 대상 시장접근 확대 • 한국 및 일본과의 산업협력, 투자유치 수요 다대 • MERCOSUR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 노력 확대

신남방정책의 영역 확대를 위해 파키스탄과의 경험 확대 가능

* 정부-기관-기업으로 이어지는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G2G, B2G, B2B 협력 전략부재

최근 G2G 레벨 면담에서의 주요 협력논의 분야

2019.8월 파키스탄 상무장관과 산업부 장관 간의 면담(서울)에서 FTA, 시장 접근 강화, 교역투자, 기업 유치, 특별 경제구역(SEZ) 활성화 등의 주제 등 논의

파키스탄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 우선 산업 ¹⁾		구체적인 역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식품 및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 경제발전 경험 및 공유, 전파 역량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 ODA, EDCF 프로젝트 적극 추진 ◆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전세계 상위권 ◆ 전통적 ICT 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11위 (Business Insider, 2017년 6월) ◆ 높은 전문인력 / 기술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농축수산업	기계장비	
전기전자, 가전	보건의료	
화학	에너지/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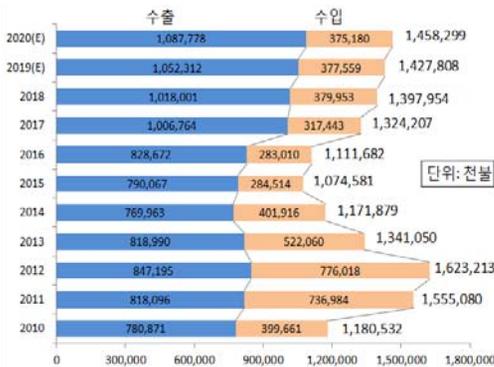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2025년 교역액 30억 달러 달성 목표설정

교역액 목표설정 근거

◆ 2020년 양국 교역 14.6억 달러 달성 (파키스탄의 17대 교역대상국)

- '18년 교역 14.0억 달러 대비 0.6억 달러, 약 4% 증가치

<대(對)파키스탄 교역 추이 및 목표>



<대(對)파키스탄 교역 순위 목표>



주1) 한국 100위권 교역 국가의 2010-2018년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 2019 및 2020년 예상치 적용 후 순위 추정
자료 : World Trade Atlas

1) 양국 정부정책, 기업수요(설문), SDG분석, 한국무역역량과 파키스탄 시장성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산업

한-파키스탄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구분	대외환경 + 기업(정책) 수요	유형	협력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척 신흥시장 개척 ▶ 대(對)서남아 균형외교(리스크 분산) ▶ FTA 확대 가능성 ▶ 중동-유럽-중앙아시아 신(新) 교두보 루트 개척 	B2B	자동차
		B2B B2G	건설기계 장비 및 소재
		B2B B2G	화학
		B2B	전기전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이의 중심의 실용적 외교 ▶ CPEC 의존도 감소 ▶ 자립형 경제구현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산업협력과 투자유치 적극 ▶ 위생 및 에너지 인프라 부족 	G2B B2B	보건·의료기기
		G2B B2B	농축수산
		B2B	식품 및 가공
		B2G	(신재생) 전력/에너지

국제정세의 역동성을 감안,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실행 모델 개발

4대 아젠다	경제협력 전략 방향
(G2G) 산업·정책 한류로 상생협력 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한-파키스탄 FTA, 개발협력, 경험공유, 인증 등 통상협력 기반 강화 ▶ (분야) ODA, EDCF, KSP, 글로벌 CSR/CSV
(B2B) 양국 기업 간 주요 산업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 등 코리아 프리미엄 전파 확대 ▶ (분야) 자동차, 섬유, 농업, 건설자재, 식품가공 등
(B2G) 에너지/인프라/환경 개발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IT Park 조성, 수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농업 인프라 개선, 병원 등 위생시설 구축 등 ▶ (분야) PPP 참여, ODA/EDCF/KSP, 글로벌 CSR/CSV
(국민) 상호인력교류의 시너지 형성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상호인력교류 → 양국 경제협력의 연결고리화 ▶ (분야) 해외투자진출(인력), 일자리 창출, 무역확대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단기-중장기 다차원 접근 추진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산업·정책 한류로 상생협력 관계 구축

산업 및 정책 한류를 통해 상생협력의 미래지향적 관계 강화

① 양국 FTA 체결 등 통상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책 수요) 최근 양국 장관급 면담으로 상호 시장 접근 강화 등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멘텀 유지
 - * 양국 상무부 장관 면담(2019.8)에서 한-파 FTA, 양자교역 증진 등을 논의
 - 특히 2019년 5월에 타결된 중-파키스탄 FTA 2단계 협상 결과, 중국제품의 대(對)파키스탄 시장접근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우리기업의 입지를 위협
 - * 2007년 중-파 FTA 발효 이후 중국제품의 유입 증가로 수입시장 점유율이 20%까지 확대

중-파 FTA(CPFTA)에 따른 협력기회 축소 분야

- ▶ 중-파 FTA(CPFTA-I)으로 파키스탄은 대중 수입품목의 60%에 대해 관세 양허
- ▶ 중-파 FTA 2단계 협상(CPFTA-II)으로 향후 15년간 양허 품목을 7% 추가로 확대
- ▶ 파키스탄 관세분류 기준 95% 품목이 CPFTA의 틀 안에 포함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의 95%에 대해 전자 데이터교류(Electronic Data Exchange) 시행

- (기업 수요) 양국 기업대상 우선협력분야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교역확대가 1순위, 무역협정 체결이 2순위를 차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78개사)	교역확대 38.0%	무역협정 체결 25.6%	인프라 등 SOC사업 10.3%
파키스탄(65개사)	교역확대 43.4%	무역협정 체결 19.2%	4차 산업분야 협력 15.9%

자료 : KOTRA 카라치무역관 설문조사 결과(2019년 8월)

- 3순위로는 한국기업은 인프라 등 SOC 사업 참여, 파키스탄 바이어는 4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
- 애로 사항에 대한 질문에 한국기업은 파키스탄의 직·간접 수입규제를 1순위(35.5%)로 선택하는 등 양국 간 G2G 차원의 협력 수요 존재
- (협력 방안) 양국이 직면한 경제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상호 시장을 개방하는 Early Harvest 접근 추진

- 파키스탄 산업 육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한국산이 경쟁우위가 있는 품목 분야 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인하·상호인증 협의를 추진

* (관세인하) 산업설비·기계, 자동차 부품 / (상호인증) 건설중장비, 의료기기 등

② KSP/ODA를 활용한 산업·정책 한류 확산

- (ODA 수요) 한국으로부터 교육, 위생(물관리), 농업개발, 도로/전력 인프라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분야 ODA 지원을 받음
- 파키스탄은 개발협력 분야 신남방 중점파트너 국가로 지정(2018년 11월, 제10차 외교부 차관 한-파 정책협의회)

자립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역량 강화는 파키스탄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이며, 특히, 만성적 거시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제조 생산성 및 인적역량 강화가 핵심

최근 10년 간 대(對)파키스탄 ODA/EDCF 현황

연도	사업명	세부내용
2018-2019	(18/19 KSP-ADB 공동건설링) 편자브주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관련 도시개발 사업 설계 지원	편자브주 물 관리 분야 도시 서비스 현황 진단 및 운영 효율성 개선 방안 도출, 스마트 물 관리 관련 역량강화 실시
2012-2023	말라칸트터널 건설사업	국도 45호선 말라칸트 구간에 신규터널 및 진입로를 건설,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2016-2022	신드주 아동병원 건립사업	200병상 규모의 아동병원 신축, 의료기자재 공급, 교육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2016-2022	45번 국도(켈카탁~치트랄) 개선·확장사업	노후화된 지방 주요도로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해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과 내륙 지역 간의 교류 확대
2017-2027	IT 파크 건립사업	업무 공간, ICT 인프라 및 보안시설, 부대시설(숙박, 식당 등)을 제공하는 등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하여 IT 산업의 경쟁력 강화, 운영인력 교육 훈련
2019-2023	45번국도 개선·확장 사업 (2차)	노후화된 지방 주요도로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해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과 내륙 지역 간의 교류 확대
2011-2014	파키스탄 수자원 연수센터 건립사업 ('11-'14/300만 불)	연수센터 건축,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등
2018-2021	파키스탄 UNESCO 소녀들의 기초교육권리 확충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사업 ('18-'21/350만 불)	교육 소외공동체 내 소녀들의 초등학교 등록률 제고 활동 지원, 소녀들의 초등학교 출석률 및 상급학교 진학을 개선 활동 지원, 사업 대상지역 교육정책 담당자 및 교사 교육 강사의 교육역량 강화 지원
2018-2019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경찰역량 강화 사업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경찰차량 지원
2019-2024	파키스탄 물과 위생(WASH) 분야 포괄적 역량강화('19-'24/742만 불)	파키스탄 정부의 WASH 관련 문제의 통합관리 및 조정 (coordinating)능력 함양 등 SDG 6 관련 자체 보고 시스템 확립을 위한 WASH Cell 지원
2019-2023	파키스탄 태양전지 모듈 인증시험소 설립 ('19-'23/950만 불)	PCRET의 역량강화, 시험소 건축, 기자재 제공,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태양광 분야 연구개발
2018-2021	아태지역 농업 및 가치사슬 발전 사업	아태지역 농업 및 가치사슬 발전 사업
2019	아시아 중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아시아 개도국의 중자분야 전문가를 초청, 관련 제도 및 중자품질 보증을 위한 기술을 전수하고 참가국 간 중자산업 정보교류

자료 : www.ksp.go.kr

- (KSP 수요) KSP 사업은 2건에 불과하며, 주로 중소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주력산업 생산성 제고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전수·공유하는 정책자문 위주로 진행

최근 10년 간 대(對)파키스탄 KSP 현황

연도	사업명	세부내용
2014~2015	파키스탄 경제개발과 운영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 구현을 위한 발전 계획(NIS 중심) •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전략 수립 • 대학 내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인큐베이션 기능 활성화 • 대학 캠퍼스 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2012~2013	파키스탄 경쟁력 제고를 위한 4개 분야에 대한 정책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소기업(Micro-Enterprise)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방안 • 파키스탄 산업부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 • 섬유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방안 • 인적자원의 고등교육 및 전문훈련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제고

자료 : www.ksp.go.kr

- (향후 제언) 양국 산업·기업 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KSP/ODA 프로그램 디자인 및 실행

대(對)파키스탄 KSP 유망 분야

주제(안)	주요 내용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섬유 및 주요 수출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자문, 연수 프로그램, B2B 협력 사업 패키지 ▶ 파키스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컬기업의 기술이전과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하는 협력 ▶ 건설기계장비 인증제도 전수·교육훈련 프로그램
산업 및 수출단지 운영 노하우 경험 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경제구역(SEZ)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자문 ▶ IT Park 구축 및 운영경험 공유(SW 일자리 창출 연계)
ICT를 통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및 정책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e-government) 정책자문·시스템 운영경험 공유 * e-Government Citizen Portal Innovation, Automation of Post Offices
보건·의료분야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인증관련 기술협력 방안(우리제품의 기술등급 개선) * 현재 중국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품군으로 분류 ▶ 아동병원 및 연구소 건립 및 운영(EDCF 연계) ▶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물관리 시스템 및 환경기술 도입방안

자료 : National Engineering Corporation, 정부인사 인터뷰, 무역관 자료 종합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협력

① 제조업(자동차, 자동차 부품, 소비재) 분야 협력

- (시장 수요) 한국 기업은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1순위로, 파키스탄은 제조업(산업기계 및 장비) 분야를 협력 2순위로 선정

* 자동차 산업의 성장 → 금형 등 제조에 필요한 설비 수입 증가세(최근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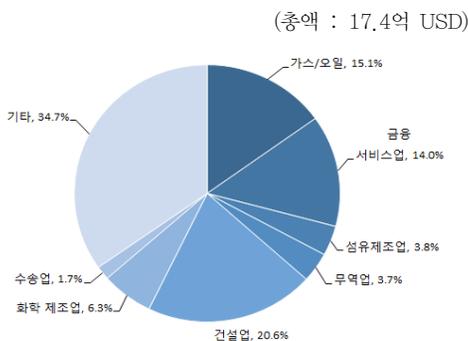
- 특히, 우리기업은 파키스탄 현지 산업여건이 미약해 소비재 분야에 있어서도 단순 수출이 아닌 제조협력 등에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 있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78개사)	제조(자동차 부품) 12.4%	서비스업 외(건설업) 9.0%	제조(가정용 기기) 7.7%
파키스탄(65개사)	제조(소비재) 15.5%	제조(산업기계 및 장비) 8.6%	제조(자동차 및 트랙터) 8.0%

자료: KOTRA 카라치무역관 설문조사 결과(2019년 8월)

- (산업 역량)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에 불과해 한국으로부터의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입 수요 존재
 - GDP의 50%는 서비스업, 20%는 농업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수입, 물류·유통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물자 조달이 중요한 상황
- (투자 유치) 파키스탄의 Net FDI 부문별 비중은 건설업이 20.6%,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위주의 투자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의 비중은 미약
 - 그러나 정부는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 간 산업협력과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 중
 - * 외화부족, 제조업/수출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극복을 위해 정부는 특별경제구역(SEZ) 확대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추진 → 그러나 투자유치 역량 부족, 제조업 육성경험 부재, 행정 비효율 등으로 투자유치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애로 존재

2018/19 회계연도 Net FDI 부문별 비중



자료 : State Bank of Pakistan

2018/19 회계연도 Net FDI 국가별 비중

(단위 %)

순위	국가	비중 (%)
1	중국	31.5%
2	영국	10.7%
3	홍콩	7.5%
4	일본	6.8%
5	아랍에미리트	5.9%
6	미국	5.1%
7	터키	4.2%
8	네덜란드	3.9%
9	이탈리아	3.0%
10	스위스	1.2%

파키스탄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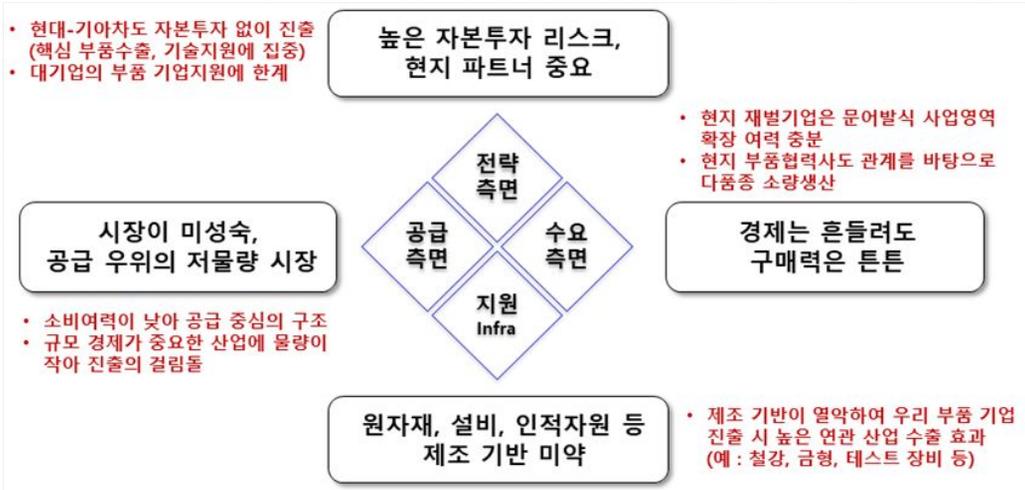
- ◆ 인구 2억, 인프라 개선, 대형 프로젝트 지속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파키스탄 내 대표 제조업 중의 하나
 - 2018년 자동차 생산량은 25만 대에 불과해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율은 13대에 불과, 시장성장 잠재력이 다대
 - * 파키스탄 GDP의 2.8%, 제조업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
 - 일본 브랜드(스즈키, 도요타, 혼다) 차량이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시장 성장에 한계 노정
- ◆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2019년부터 글로벌 완성차 투자 및 양산 본격화가 진행 중 →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시장 정상화
 - 자동차산업육성정책(ADP 2016-21)으로 유럽, 한국, 일본, 중국 등 14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조립공장이 운영·건설 중
 - * ADP 2016-21 정책으로 2021년까지 자동차 생산대수는 50만대를 넘어설 전망
 - * 닛산, 현대, 기아, VW, Changan, 벤츠 등 다양한 브랜드가 현지 진출 추진 중
 - 한국, 기아·현대자동차도 현지기업과 제휴, CKD 조립공장을 설립
 - * 기아력키자동차는 2019.7월부터 스포티지 양산 시작, 10월부터 피칸토 양산 예정
 - 일본, 스즈키, 혼다, 도요타도 신모델을 론칭, 품질 경쟁을 고조
 - * 신규 브랜드 차종이 정부의 인센티브로 가성비 좋은 차량을 출시하면서 품질향상을 위한 협력 벤더사의 기술력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한 상황

○ (협력 체계)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산업 밸류 체인 업그레이드 및 GVC 진입 기반 조성

단계별 방안	자동차 분야	기계 분야(제조설비)
협력 프레임	기아 및 현대차 진출에 따른 우리 부품기업의 동반진출 필요 → 현지진출 리스크(물량, 치안 등)로 현지기업과 제휴형태 진출	(i) 제조설비 노후화 심각 (ii)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주택건설 확대계획으로 신규·중고 건설 중장비 수요 확대
1단계	(B2B) 현대/기아차 시장점유율 확대	(B2B) 자동차 산업 중심 설비 대체
2단계	(B2B) 한(韓) 부품기업의 현지기업과의 기술협력과 제휴를 통한 부품국산화 제고	(B2B) 기계장비분야 파생 시장 확대(B2G) 기술교육 훈련 프로그램
3단계	(B2G) 현지 부품기업의 기술력 향상지원을 GVC 진출 확대 경험 공유	(B2G) 유희장비 제공 CSR 사업을 통한 우리제품의 활용도 제고

한-파 자동차 산업협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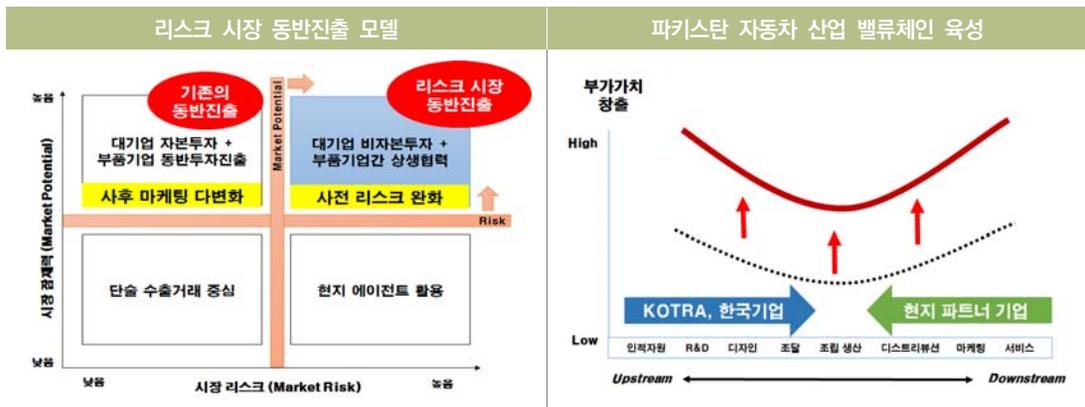
【환경 분석 : 파키스탄 자동차 산업 경쟁력 현황 분석】



【파키스탄 모델 : 자동차 부품기업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방향】

구분	기존 (既진출기업 마케팅 판로확대)	변형 (진출 리스크 완화형)
목적	기 투자진출 부품기업의 현지 마케팅 판로 다변화 지원 (사후적)	수요 풀링(Pooling)을 통한 사전 진출 리스크 완화 (물량문제 해소)
방식	수출 위주 상담	수출 + 기술협력 + 조인트 벤처
효과	단기 수출중심 연관산업 수출효과 제한적	중장기 투자협력으로 연결 원자재 및 설비 연관 수출

【(종합) 한(韓) 자동차 부품 기업의 파키스탄 진출의 상생 효과】



자동차 산업 협력사례 및 시사점

◆ (협력 사례) 신모델 개발, 부품 국산화, 제조역량 제고 등을 위한 파키스탄 자동차 완성차 OEM 및 벤더와 한국 부품기업 간 파트너십 수요 증가

- * 자동차 부품업계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일본 및 한국 자동차의 부품 밸류체인을 육성 및 진입 지원
- * 일본 OEM 벤더의 설비 및 기술력 취약, 현대·기아차 재진출 확정 등의 기회요인 활용

참기기업	현지파트너	주요 내용
M사	기아력기자동차	차량용 멀티미디어 및 에어컨 국산화 개발 MOU
	S사(라호르)	차량용 에어컨 국산화 개발 MOU
D사	M사(라호르)	파킹 브레이크 기술협력 및 부품 수출 MOU
J사	P사(카라치)	자동차 부품(시트) 프레스 금형제조 기술협력 MOU
S사	A사(카라치)	자동차 부품 프레스 금형제조 수출 (1백만불)
E사	A사(카라치)	자동차 부품 냉연간판 수출 (30만불)
I사	J사(카라치)	속옵서버 부품 개발 기술지원 협의 중
Y사	R사(라호르)	자동차 오일펌프 기술개발 프로젝트 협의 중
V사 등	P사(카라치)	폭스바겐 상용차 조립설비 수출 및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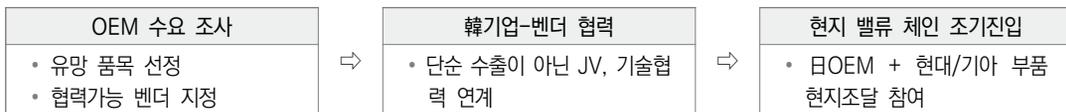
◆ (시사점) 수출은 물론 기술협력, JV 등 융복합 해외진출 모델이 바람직

기타 제조업 분야 진출협력 방안

◆ 자동차 부품기업 역량제고를 위한 B2B 파트너십 강화

- (참여주체) 한국 : 자동차 부품 기업 / 파키스탄 : 완성차 제조기업, 로컬 부품기업, 파키스탄자동차부품제조협회 등
- (협력내용) 부품기업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젝트, 고부가가치(엔진 및 트랜스미션 등) 부품개발을 위한 기술지원,韓자동차 부품국산화 개발 협력 등

〈파키스탄 자동차 부품 진출지원 프로세스(안)〉



◆ 현지 소비자 특성을 감안한 CKD 전략 및 맞춤형 소비재 R&D 추진

- 파키스탄 소비자는 중저가의 평균적인 품질과 사양 제품 선호
- 초기마진은 작더라도 품질/이미지를 인식시킨 뒤, 구매층이 형성되었을 때 정상적인 마진 가격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전략 필요
- 기존 제품의 수출보다는 현지 소비자들의 핵심 구매결정 요인(Key Buying Factor)을 파악, 디자인과 기능을 간소화하는 등 신흥국 맞춤형 R&D 추진
- 완제품 수출방식에서 현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CKD 조립생산 추진

2 건설기계·서비스 분야 협력

- (시장수요) 우방국·국제기구의 지원 등으로 현지 건설시장은 지난 3년간 약 6~8% 성장률 기록
 - * KOTRA 카라치무역관의 ABAD(Association of Builders and Developers)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연간 20억 달러의 건설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
- (정책수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인 2023년까지 저가형 주택 500만 호를 공급(Naya Pakistan Housing Project)하는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
 - * 동 프로젝트로 40여개의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5백만 호 건설 공약과 우리 기업의 기회

- ◆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신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
- ◆ 정부는 물론 민간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될 전망
-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분야에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해외사례 적극 벤치마킹 전망
 - ⇒ 우수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2020년 본격 추진 시 시멘트, 아연 및 철강, 건설기계 등 파생 연관 산업 붐도 조성되면서 관련 분야에서 수입수요 확대

- (기대수요) 건설기술 수준은 열악하여 선진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
 - 주택 5백만 호 공급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건설 프로젝트 발주 및 관련 자재와 설비 등에 대한 조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루피화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경우 건축비용이 상승되면서 현지 업계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기술 수준과 프로세스 개선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 중국산 건설 장비 및 자재의 품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높은 관심
- (한국역량) 건설장비 및 건축자재 분야에 우위가 있으며, 중국 등 경쟁국 대비 A/S 서비스 제공, 기술 교육 등에 대한 차별화된 역량 보유
 - * (유망 품목) 건설기계, 어태치먼트 등 건설기계 분야, 네일 건, 수평조절기, 화물 리프트, 정수시스템 등 건축 설비 및 장비 분야 등이 진출이 유망
- (협력전략) 기술제휴-생산역량공유, 에이전트 역량제고 등의 경험활동 전개
 - (참여주체) [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파] 파키스탄건설개발자협회(ABAD), 파키스탄건설컨트랙터협회(C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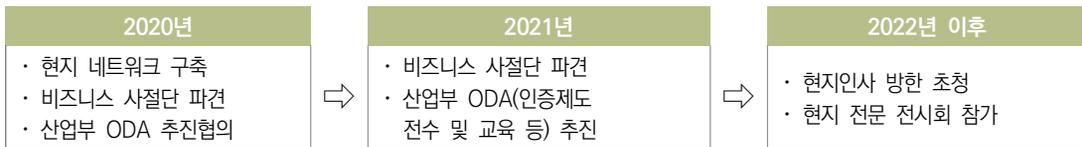
(협력예시1) 건설기계 : [한국] 가격·기술력에서 일본, 중국, 유럽브랜드와 경쟁, 브랜드 인지도 양호 / [파키스탄] 건설기계 인증제도 전수 → ODA, 인적교류, 교역확대

(협력예시2) 건축설비 및 자재 : [한국] 가격경쟁력 제고, 정부의 자재 국산화 노력 / [파키스탄]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 한국기업과 파키스탄 기술협력 파트너십(JV, TA 등)

한-파 건설기계 산업협력 모델

- ◆ **(기회 요인)** 파키스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5년간 주택 5백만 호 건설**을 통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
 - 아직 구체적인 건설 방향, 자금 조달 및 입찰 계획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말레이시아, 중국, 터키 등 **해외기업의 참여를 독려 중**
 - * Ministry of Housing에 따르면 해외기업의 참여조건(자재 국산화 조달 →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중요) 등에 대해서 향후 보다 구체화된 계획이 발표될 전망
- ◆ **(추진 방향)** 현지 협회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KOTRA가 한국건설기계 산업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현지진출 기반 조성
 - 파키스탄 주택건설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지도가 부족**하며, IMF 경제위기와 치안 불안 등 **현지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 중요**
 -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韓중고건설기계의 2대 수출시장('18년 1위)인 파키스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미미했던 지역으로 전향적 지원 검토 중
 - ▶ '15년부터 **중고 건설기계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현지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에 따른 **파생수요가 지속 존재**
 - ▶ 건설기계 품목은 한국의 **대(對)파키스탄 수출 5대 품목 중의 하나로** 매년 평균 50백만 달러 내외 규모의 수출 발생
- ◆ **(협력 방향)** **중점 진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지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 **(건설기계)** 건설기계 완성차(굴삭기, 지게차), 어태치먼트(유압브레이커, 그라플, 콕퍼플러, 진동리퍼, 바이브로해머 등), 부품(유압 모터, 유압실린더, 실킷 등 완성차 A/S용 부품)
 - **(건축자재 및 장비)** 네일 건, 수평조절기 등 소형 건설장비, 산업용 화물 리프트, 안전 설비, 정수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태양전지 패널, 간이용 주택설치, 가설재, 화학제품 등 각종 설비 전반
 - **(협력 전략)** 건설기계 및 서비스 분야 **양국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비즈니스 협력 사절단 파견, 건설기계 인증제도 전수 및 교육 등의 동반성장 모델 전개**

〈한-파 건설기계 산업협력 로드맵〉



3 섬유 산업 분야 협력

- **(시장수요)** 2017/18 회계연도 파키스탄 GDP의 8.5%, 파키스탄 대외 수출의 54%를 차지하고, **제조업 고용의 38%를 창출하는 주력 산업**에 해당
 - * 2017/18 회계연도 섬유제품 수출규모는 1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증가
 - *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주력품목이 마이너스 수출성장세를 보인 2018/19 회계연도에도 전년대비 미미하지만 1.5%의 양(+)의 수출성장세를 유지
 - * 파키스탄은 세계 5위의 면화 생산국이며,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방적능력 보유
- **(정책수요)** 정부는 섬유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Textile Policy 2014-19를 발표, 인센티브를 제공, ICT 등 신기술을 적용해 밸류 체인의 가치 향상을 추진**
 - * 수출액 및 부가가치 2배 향상, 일자리 3백만 개 창출 등을 목표로 섬유산업 업계에 섬유기계 수입세 면제, 자금조달 시 저리의 이자율 적용 등의 인센티브 부여

Textile Policy 2014-19를 통해 본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현주소

▲ 섬유 제품 100만 배일 당 부가가치를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향상 ▲ 섬유 제품 총 수출액을 연 13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향상 ▲ 섬유 기계 및 제조기술 분야에 50억 달러 투자 ▲ 전체 섬유 제품 생산량 중 혼합섬유 활용 비중을 14%에서 30%로 향상 ▲ 의류부문의 경우 혼합섬유 활용 비중을 28%에서 45%로 향상 ▲ ICT 기술 적용을 위한 계획 수립 ▲ 생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 적용 등 국제 환경 관련 협약 준수 노력 ▲ 기존 섬유산업 클러스터 강화 및 신규 클러스터 개발 ▲ 근로자 대상 전문적인 직업 훈련 도입 ▲ 3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주) 2019/20 회계연도 파키스탄 연방 예산에는 IMF 구제개혁 조치를 위한 섬유산업 면세혜택 축소 내용이 포함되어 산업성장이 위축될 우려 존재

○ **(기대수요) 원자재 생산능력 확대, 안정적인 생산설비 전력 공급원 확보,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의 생산구조 다변화 등이 산업 업그레이드 과제**

* 전력소요가 적은 섬유기계 및 생산력 증대를 위한 오픈엔드(Open-End) 정방기 도입 확대, 전문 기술인력 육성 등의 수요 존재

○ **(협력전략) 섬유염료 주요 수출국이면서, 섬유기계 및 3D 프린팅 등의 연관 산업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생산기술 전수·협력을 통한 산업 Upgrade**

* 섬유기계의 경우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일본·유럽 제품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

빅봇 Plus 분석		한-파 섬유산업 협력 잠재력								
<p>품목</p> <p>HS Code 단위별 한국-파키스탄 거래 품목</p>	<p>분석 및 스크리닝</p> <p>한국 무역 역황 - 대 파키스탄 주요 기수출 품목 - 무역 특화지수 (TSI Index)</p> <p>파키스탄 시장성(빅봇분석) - 시장 접근성 - 시장 성장성 - 시장 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무역역량과 파키스탄 시장성이 모두 높은 분야의 상당부분이 섬유산업과 연계가능 ▶ 섬유제품, 기계류, 전자기기, 에너지, 화학원료 등 8대 유망품목 중 5개 분야와 연계 ▶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로 향후 폴리에스터 원사(고관세), 합성염료, 3D 프린팅, 태양전지를 활용한 저전력 섬유기계 등의 분야 진출 유망 								
<p>한국의 경쟁력 및 파키스탄 내 시장성이 높은 품목 (HS Code 2자리)</p> <table border="1"> <tr> <td>자동차 및 부품 (87)</td> <td>섬유제품 (30)</td> <td>기계류 (84)</td> <td>전자기기 (85)</td> <td>화학원료 (28)</td> <td>의료기기 (90)</td> <td>에너지 (27)</td> <td>식품기공 (21)</td> </tr> </table>	자동차 및 부품 (87)	섬유제품 (30)	기계류 (84)	전자기기 (85)	화학원료 (28)	의료기기 (90)	에너지 (27)	식품기공 (21)		
자동차 및 부품 (87)	섬유제품 (30)	기계류 (84)	전자기기 (85)	화학원료 (28)	의료기기 (90)	에너지 (27)	식품기공 (21)			

주) 빅봇 분석에 무역경합도 대신(상호보완적 구조) 대(對)파키스탄 주력수출품목, 정부육성정책 등을 종합하여 분석

4 농·축·수 산업 분야 협력

○ **(시장수요) 파키스탄의 농·축·수 산업은 GDP의 약 20%, 전체 고용의 40%를 차지**

- * 농업이 GDP의 7%, 축산업이 11%, 임업과 수산업이 각각 0.4%의 비중을 차지
- * (농업) 수자원 부족으로 작황의 변동이 크며 밀, 쌀, 면화, 사탕수수 등이 주요 재배작물임
- * (축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축 사료 및 동물용 영양제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

○ **(정책수요) 농업·축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작황개선 및 식량안보 강화**

- 2017년 발표된 국가 식량안보 정책(National Food Security Policy)에서는 생산효율 증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고품질 종자개발, 비료 구입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
- 그러나 주요 농업 지대의 열악한 전기·수도 인프라, 낮은 교육 수준 등은 여전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

최근 정부의 정책 노력과 당면 과제

- (정책) 2019년 7월, 파키스탄 정부는 3천억 루피의 긴급농업육성프로그램 발표
 - 2019/20 회계연도 중 작황 개선을 위한 5개 분야 16개 프로젝트 예산 투입을 3.6배 증가
 - 수자원 보호 및 물 공급 증대, 작황개선 및 종자생산 증대, 축산농가 지원 등 포함
- 지속적인 환율 상승세로 현지 식품기업의 농작물 원자재 수입 부담 증가
 - 식품가공 업체는 현지 농가 육성을 통한 원자재 국내조달 확대가 필요한 상황
 - 그러나 재원과 기술부족으로 국제 원조를 통한 농가 육성이 시급

- (기대수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작물의 작황 개선 및 종자 개발, 농가의 사업역량 제고 등에 대한 해외원조 및 기술지원 필요
 - SDG 관점에서도 기아해소와 식량안보(SDG#2)와 물과 위생(SDG#6) 등은 우리의 개발협력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
 - * 한국과 파키스탄의 차이가 기아해소와 식량안보는 43.5, 물과 위생은 35.2로 평균격차인 28.6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
 - 전체 GDP의 11%로서 농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업 부문도 가축용 사료첨가제, 동물용 백신 등 품질 제고를 위한 해외기술 의존도 증가
- (협력전략) ODA-CSR-PPP 연계 공유가치창출형(CSV) 경험 확대
 - 대사관, KOTRA, 코이카, 농진청 등이 자금과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대기업(후원기업)이 CSR 형태로 시장 유통과 구매를 지원하는 경험 모델 추진
 - * 자금, 경험전수 : ODA(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BS), 대기업 CSR, EDCF, KSP
 - * 비즈니스+국제공헌 : 단순 원조가 아닌 물고기를 낚는 법을 전수하는 인적/기술역량강화 병행
 - 인도네시아에서 활성화된 OVOP*[1촌1사(1村1社)] 사업을 파키스탄에 도입
 - * One Village One Product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OVOP 마을과 후원결연을 통해 제품가치 제고, 판로 개척 등 현지주민 자립기반 구축 지원

다. [B2G] 환경·에너지·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 (환경) 대표적인 물 부족 및 환경오염 국가로서 폐기물, 폐수처리 및 해수담수화 등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구의 관심 고조
 - (물 부족) IMF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세계 물 부족 국가 중 3위를 차지, UNDP 등에 따르면 이런 추세로는 2040년까지 최악의 물 부족국가가 될 전망
 - * 지하수 고갈 및 표층수 오염정도가 심해 정수처리장 시설이 시급한 상황이며 인도와 접점지역에 있어 갠지스 강 등 수원공급 문제로 주변국과의 갈등이 발생
 - (환경오염) 폐기물 및 폐수처리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과 기술 부족
 - * 매일 6만 7,500톤의 고품폐기물이 발생, 50~69%의 폐기물만이 수집되어 매립지에 폐기 중
 - * 소도시·마을 주거지의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인공 습지와 같은 저비용·분산형 기술 유망

(협력예시) 환경기술 역량이 미흡, 현지 정부관계자·기업을 육성(기술교류)하면서 동반 성장

- 이를 위해 KOTRA가 글로벌 CSR, 환경기술 분야 사회적 기업의 해외진출 등 다각적 지원 모델을 접목하도록 지원해야 개발협력 성과 제고가 가능
- 사절단과 전시상담회 등의 단편적인 마케팅 사업을 넘어 국제기구 재원과 국내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연계, 특정 산업분야 경제협력 패키지 제공 추진

구분	주요 내용
글로벌 C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Green Technology Academy(한국녹색기술학교) 운영 * (대상) 정부관계자, 발주처 기업, 현지 대학교 연구원 등 * (내용) 환경산업 인증·검증 기술 전수, 우리 기업 이미지 제고
사회적 기업 해외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청년 창업가 등) 진출 지원
산업투자 KSP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업 중소기업 지원전략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 (프로세스) 착수보고 → 워크숍 → 중간보고 → 최종보고(2개년 사업) * (대상) KOTRA, 환기원, 중진공, 중기연, 환경보전협회 등 ○ 현지 환경 관련 정부인사 및 발주처의 국내연수 프로그램 운영
F/S 사절단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폐기물 관리, 저비용 폐수처리 기술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F/S 사절단 운영 지원

○ (인프라) 인프라 개발 부문 민간투자 유치규모(PPI), 세계 52개국 중 5위(2017년)

* PPI: World Bank가 매년 발표하는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지수. 2017년 1위는 중국(175억 달러), 2위는 인도네시아(154억 달러), 3위는 멕시코(86억 달러), 4위는 브라질(73억 달러), 5위는 59억 달러로 파키스탄이 차지(상위 5개국이 전 세계 PPI의 51%를 차지)

(SDG 관점) 인프라와 산업화 부문(SDG9)에서 양국 간 가장 큰 갭 존재(*68.7로 한국 우위)

- 파키스탄은 59억 달러 규모로 서남아 전체 117억 달러 규모의 절반 수준이며, 2017년 처음으로 인도(48억 달러)보다 높은 민간 인프라 투자유입을 기록

○ (에너지) 전력 부족에 따른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요는 지속

- 정부는 전력부족 완전 해소를 당면과제로 설정, 수력발전소 증설을 적극 추진 중이며,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증가

*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에서 20%로 끌어 올리는 정책 목표를 검토 중

(협력예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프로젝트 기회 참여

- 현지 발주처 및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 투자진출 기회를 모색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물론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발전소 운영(O&M) 분야에도 우리 건설 서비스 기업의 현지 진출기회는 지속 존재할 전망

* 한전 KPS, 2018년 5월 향후 10년간 1,321억 원 규모의 660MW 석탄화력발전소 O&M 사업 수주

라. [국민] 상호인력교류 시너지 형성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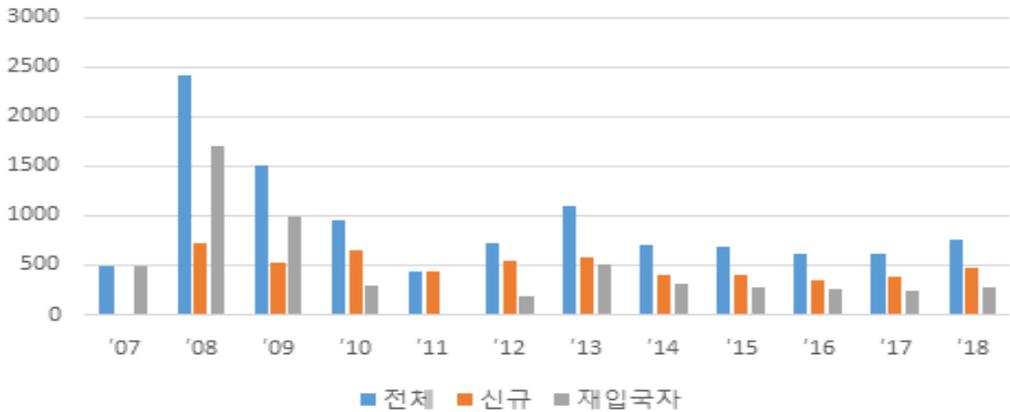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양국 간 인력교류는 파키스탄 노동자의 한국 송출(E-9 비자)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생활 및 치안여건, 문화적 차이로 관광교류는 미흡한 수준

→ CSR 및 SDG 구현 관점에서 1만 파키스탄 인력의 양국 경제협력 '자산화' 중요

지난 10여 년간 양국 인력 교류 현황

(단위 : 명)

파키스탄근로자(E-9) 송출현황



구분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10,984	483	2,417	1,510	952	441	724	1,090	700	679	609	620	759
신규	5,439		712	521	650	441	540	579	394	400	347	377	478
재입국자	5,545	483	1,705	989	302	0	184	511	306	279	262	243	281

자료 :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양국 SDG 분석 결과

SDG 관점에서 한국은 파키스탄 보다 28.6점 앞서 있으며, 양국이 평균 이상의 점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목표는 아래와 같음.

SDG 점수 차이		■ > 59.8	■ 44.2~59.8	■ 28.6~44.2	□ < 28.6
No.	내용	파키스탄	한국	한국-파키스탄 차이	절대값
SDG1	빈곤퇴치	77.9	99.0	21.1	21.1
SDG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34.4	77.9	43.5	43.5
SDG3	보건증진	50.2	92.4	42.2	42.2
SDG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47.5	95.8	48.3	48.3
SDG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28.9	63.9	35	35
SDG6	물과 위생	46.3	81.5	35.2	35.2
SDG7	에너지	72.4	92.5	20.1	20.1
SDG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65.7	86.2	20.5	20.5
SDG9	인프라와 산업화	15.0	83.7	68.7	68.7
SDG10	불평등 해소	58.0	86.5	28.5	28.5
SDG11	지속가능한 도시	50.6	80.3	29.7	29.7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92.1	63.5	-28.6	28.6
SDG13	기후변화대응	98.7	87.7	-11	11
SDG14	해양자원 및 생태계	47.6	54.8	7.2	7.2
SDG15	육상생태계	67.0	57.2	-9.8	9.8
SDG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49.1	75.4	26.3	26.3
SDG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43.3	53.4	10.1	10.1
평균		55.6	78.3	22.8	28.6
절대값의 평균, 표준편차		평균: 28.6, 표준편차: 15.6			

평균 이상의 점수 차이를 가진 SDG

SDG	우위국가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SDG2)	한국	
보건증진 (SDG3)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SDG4)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SDG5)		
물과 위생 (SDG6)		
인프라와 산업화 (SDG9)		
지속가능한 도시 (SDG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증진 (SDG12)		파키스탄

① 상생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방안

- ① 우수한 파키스탄 근로자의 대(對)중소기업 활용 지원에서 더 나아가,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중간관리자 공급 가능 확대
- ② 정부, 기업,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산업 한류(기술 등), K-Beauty, K-Pop 등 인적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인력교류 사례와 SDG 관점의 의의

◆ [사례1] 우수한 파키스탄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지원

- * 2006.6.26. 한-파 고용허가제(EPS) 인력송출에 관한 MOU체결
→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 국내 경제발전 경험 및 교육시스템, 정책 노하우 전수 (KSP와 연계가능)
※ 빈곤퇴치(SDG#1) 및 인프라와 산업화(SDG9) : 한국 우위

◆ [사례2]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및 직업교육(인적역량강화) 지원

- * [KSP] 자동차 부품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제조기술 역량 제고
→ 국내 경제발전 경험 및 교육시스템, 정책 노하우 전수(KSP와 연계가능)
- * [글로벌 CSR] 이슬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 뷰티스쿨 운영
※ 빈곤퇴치(SDG#1),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SDG#5), 교육보장과 평생학습(SDG#6) 및 인프라와 산업화(SDG#9) : 한국 우위

◆ [사례3] 귀국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진출기업 채용 지원

- * (근로자 측면)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로 자발적 귀환 유도
- * (기업체 측면) 한국에서 배우고 익힌 한국어와 기업문화, 일하는 방식 및 기능 등을 통해서 한국 진출기업과 현지 근로자간 소통창구 및 현지 근로자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에 활용
※ 빈곤퇴치(SDG#1) 및 인프라와 산업화(SDG#9) : 한국 우위

〈귀국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지원 절차〉



주1) 공단 : 대사관 소속 산업인력공단 EPS 센터

주2) 한국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귀국한 파키스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출기업의 구인요청 시 적임자 매칭 지원

② KSP 및 CSR을 활용한 인적자원 역량 제고

① (정부) 외국인투자 역량 강화 및 SEZ 운영 활성화를 위한 KSP 추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확대는 불가피한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입안 및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량은 미흡
- * 총리실 직속 파키스탄외국인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의 전문성과 인프라 미약

-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 및 경험공유 검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 역량강화 방안 KSP(잠정)

- (주요 내용) 정책자문 주제 및 세부 내용
 - BOI 조직의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및 제도 개선 컨설팅 및 워크숍 제공
 - 특별경제구역(SEZ)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경험 전수
 - FDI를 통한 자동차산업 밸류 체인 육성 등 중소기업 발전 방안을 제시

세부 제안과제 (잠정)	
주제1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및 제도 개선
주제2	특별경제구역(SEZ) 운영 활성화 경험 공유
주제3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추진 주체) [한] KOTRA(산업부) / [파] Board of Investment(BOI), National Industrial Parks Development & Management Company (NIP)

② (기업) 현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KSP 추진

-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산업분야 중심으로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 대-중소기업 협력 경험 공유에서 더 나아가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 *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 시스템, 관련 제도 및 성공사례 등에 대한 경험공유 및 양국 간 B2B 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 * 고용창출과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로컬 밸류 체인 및 GVC 진입은 로컬 및 해외 대기업의 지원과 협력 하에 가능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 체인(GVC) 참여 확대 지원 KSP(잠정)

- (주요 내용) 정책자문 배경 및 세부 내용
 - 파키스탄 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청(SMEDA)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GVC 진입 확대를 위한 정책 자문과 양국 기업 간의 협력방안 마련 제안
 - 정책자문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 투자협력,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양국 간 B2B 협력 방안이 논의 필요
 - 파키스탄 중소기업이 현지 대기업은 물론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내수는 물론 글로벌 납품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바, 양국 기업 간의 기술협력 세미나, 인증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연계 가능

KSP 2020/21 세부 제안과제 (잠정)	
주제1	• 대-중소기업 주요협력 분야별 심층정보 수집
주제2	• 한국의 대-중소기업 협력(하청) 관계 구축 경험 공유
주제3	• 공공/민간차원의 대-중소 협력지원 프로그램, 관련 제도 및 이해 관계자 분석
주제4	• 중소기업과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통해 성장한 한국 대기업 사례 심층 조사(직접 면담 및 인터뷰)
주제5	• 대-중소 협력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경험과 효용성

- (추진 효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 다변화 기회 제공
 - 파키스탄은 해외기업의 단독투자 리스크가 높고 만성적 무역적자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파키스탄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

- KSP를 통해 기업 진출에 유리하게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 마련 가능
- 현대·기아차 본격 양산(2019년 하반기~) 시 부품 국산화를 위한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지 부품기업과 협력투자 확대를 위한 좋은 디딤돌로 작용 가능
- KSP 사업을 통해 우리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중소기업 협력 및 동반성장, 산업발전 등에 대한 경험 공유는 물론, 현지 정부가 육성하는 주요 산업별 해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 도출함(K패키지 연계사업)으로써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및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③ (CSR)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자원개발형 CSR 사업 추진

- (SDG 관점) 보건증진(SDG#2), 교육보장과 평생학습(SDG#4),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SDG#5), 인프라와 산업화(SDG#9) 등의 분야 CSR 연계 인적역량 강화
 - * 삼성전자 파키스탄 법인은 저소득층 여성이 자체 제작한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자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운영(AANGAN : Women of Strength Program)
- (대기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IT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 * 삼성전자 파키스탄 법인은 CSR 차원에서 Lahore RUMS 대학 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기관(National Incubation Center)과 협력해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중
- (중소중견기업) 스킨케어 솔루션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강화, 자동차 부품 금형 기술 인력 양성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에 대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력수급에 활용

- ▶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 대중소 동반성장,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등 산업육성 경험 전수
- ▶ 파키스탄 청년 대상 현지 진출유망 분야 기술전수 및 직업 교육프로그램 확대
 - * 고급인력 공급 인센티브 협의(G2G), 수료학생 현지기업 및 인력송출 취업지원(B2B)
- ▶ 단순 나눔의 CSR에서 인적역량강화를 통해 전략적 경영활동화(CSV) 프로세스 지원

Ⅲ. 향후 對파키스탄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파키스탄 경제협력「애드혹(Ad-hoc) 채널」구축

- 한-파 무역투자공동위(격년), 고위 정부인사의 순방 등의 기회를 양국 간 통상·경제협력 논의의 기회로 활용
- 국제관계의 역동성(테러 위협, 치안 불안, 인도와의 갈등 등)을 고려, 민간 주도의 Bottom-Up 접근 중심 접근
 - * 사안별 민간협력 그룹을 형성, 현지 공관의 협조 하에 로우키(low key)로 경제협력 논의 구체화

② 공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 아젠다 이행력 확보

- 공관의 상무기능과 KOTRA 무역관 간 핫라인을 구축, G2G-B2G-B2B 협력 프로젝트가 유기적으로 계획 및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사관 주최 진출기업협의회(반기 1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 아젠다 논의
- B2B 과제는 KOTRA 무역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행하고, G2G 및 B2G 과제는 대사관 지원 또는 대기업과의 협업 등의 형태로 추진

③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숲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양국 정부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병행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어재선	관장	카라치무역관	+92-21-3530-3777	imaro75@kotra.or.kr

KOTRA자료 20-068

2020 국별 진출전략 **파키스탄**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14-9(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